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newstarrealty.com  
Diana Park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2014년 한인사회 10대 뉴스

### 세월호 참사 올해의 뉴스 압도적 1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올해 보스톤코리아의 칼럼니스트들과 편집진이 선정한 10대 뉴스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기사는 단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한인들의 반향이었다. 이는 인터넷 상에서도 가장 큰 화제가 되어 1만건이 훌

쩍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5월 18일 한인 주부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를 시작으로 젊은 층이 주축이 된 추모 집회가 보스톤에서 여러 차례 열렸으며 일부 한인 목회자들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보스톤과 로드아일랜드, 뉴햄프셔 한인회장들이 이와 같은 운동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인들의 비난을 샀다. 보스톤코리아는

칼럼 (편집국에서)를 통해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하면서 인터넷 상을 뜨겁게 달궜다. 이 기사를 1위로 선정한 한 보스톤 코리아 편집진은 “너무도 충격적이고 가슴 아팠던 사건이었다”며 “정부 당국과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대응이 실망스러워 이런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기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2위로 선정된 올해의 한인 뉴스는 매사추세츠 최초 한인 판사 전명진 씨의 이야기다. 힘겨운 이민의 삶을 이겨내고 성공 사례를 일궈낸 전 씨의 소식은 한인 이민사회의 자부심을 우뚝 세웠다. 이 기사를 1위로 선정한 김은한 칼럼니스트는 “한인사회가 이민 초기에는 교육이나 생존에만 전념하는 이민 정착형 생활방식을 유지해왔다”며 “이제는 그 방식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더불어 사는 미주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인들은 사회, 정치 분야에서 영향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

**2014년 한인사회 10대 뉴스**

1. 보스톤 한인 사회도 뒤흔든 세월호 참사
2. 전명진 최초 한인 판사 탄생
3. 한인회장 선거 무산, 여전히 후보 없어
4. 변호인, 명량, 군도 등 한국영화 보스톤 상륙
5. 한인 3세 대니얼 고, 월시 시장 수석 보좌관 임명
6. 채장암 말기 최형철 씨 돕기 모금운동
7. 업성준 총영사 부임 및 박강호 총영사 이임
8. 이승철 하버드 무료 자선 콘서트
9. H마트 캠프리지점 개장
10. 해외금융 자산 신고

**보스톤코리아 26일자 정기휴간**  
보스톤코리아는 크리스마스 휴무주일을 맞아 26일자를 휴간합니다. 복된 성탄절과 함께 새해에는 모든 소원하시는 일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 보스톤코리아 임직원 일동 -

**드벌 패트릭 “아직은 대선 출마 계획 없어”**  
이민사회 아쉬움 표출 베이커 임기 “불안”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이민사회와 끈끈한 친분을

유지했던 주지사 드벌 패트릭이 8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17일 수요일 매사추세츠 의사당에서 마지막 소수민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국, 아일랜드, 아이티, 브라질  
▶▶9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japantravelinfo.com  
\*미국과 인천공항의 왕복편은 지정된 항공사의 티켓입니다. \*도쿄 내 호텔, 이코노미 호텔 기준 \*예약상황과 좌석상황에 따라 프로모션 가격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NEWSSTAR Realty of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2013년, 2014년 연속 2년  
**뉴스타 부동산 미주전체 1위**  
풍부한 경험과 실적이 증명합니다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MORTGAGE MASTER**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 2014년, 보스톤 지역 한인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은 뉴스는?

▶▶1면에 이어서

고 전했다. 한편, 후보가 없어 회장선거가 무산된 소식이 3위를 차지해 자발적인 리더가 나서지 않는 한인회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회장선거가 끝나도록 후보가 나타나지 않아 이사회의 추천 방식을 통한 선출을 기대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인회장 이취임식을 겸한 한인회 연말파티가 지난 14일로 예정된 바 있었지만 내년 신년 또는 구정파티로 잠정 연기됐다. 칼럼니스트들과 보스톤코리아 편집진 모두 이와 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기사에 높은 순위를 매겼다. 4위는 '변호인', '명량', '군도' 등 한국영화의 보스톤 개봉이 차지했다.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한국영화가 잇따라 개봉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인터넷에서도 티켓 증정 이벤트를 통해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뉴스기도 하다. '변호인' 과 '명량' 이 좋은 반응을 보이며 기대 이상의 흥행을

기록했지만 '군도' 와 '해적' 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흥행에 실패, 조기종영의 쓴맛을 봐야 했다. 이어 5위로 선정된 올해의 한인 뉴스는 마틴 월시 시장의 수석 보좌관으로 임명된 한인 3세 대니얼 고의 이야기다. 한인 사회와 적극 교류하겠다는 대니얼 고는 한국문화와 김치, 불고기 등 한식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내며 눈길을 끌었다. 한편, 연말연시 한인사회에 따뜻한 소식을 안겨준 웨장암 말기 최형철 씨 돕기 모금활동이 6위로 선정되었다. 도요타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마비가 된 아내를 17년간 간호한 최 씨는 지난 9월 웨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한인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최 씨 가정을 돕기 위해 한인들은 골프대회, 바자회 등의 모금활동을 시작했고 \$4,480의 성금이 건여 최 씨 가정에게 전달되었다. 7위는 3월에 임기를 마친 박강호 총영사를 이어 4월 3일 엄성준 총영사가 새롭게 부임한 뉴스가 차지했다. 한인사회의 '변화와 창조' 를 이뤄내겠다는 포부로 부임한 엄 총



영사는 한미 운전면허증 교환 등 한인 편의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박 전 총영사를 기억하는 한인들의 큰 기대 속에 임기를 시작했다. 한인뉴스 8위로 선정된 가수 이승철의 하버드 콘서트는 지난 8월 한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이승철은 탈북청년합창단과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드림 온(Dream ON: One Nation) 콘서트를 열어 천여명 관객을 동원했다. 9위를 차지한 H마트 캠브리지점 개장은 시내 한가운데 입성한 한인 식품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관찰할 수 있는 기사였다. 인근 소규모 식품점들이 받게 될 타격에 대한 우려 속에 개장한 캠브리지점은 보스톤 대표적인 아시안 그로서리로 입지를 굳혔다.

해외금융 자산신고에 대한 기사가 10위로 선정되었다. 올해부터 1만달러 이상은 재무부, 5만 달러 이상은 IRS(국세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본지 칼럼니스트들과 편집진은 "매우 중요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듯하다" 는 의견을 모으며 이 기사를 선정했다.

다. 이어 보스톤과 뉴햄프셔,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장이 다소 과격하 내용인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많은 한인들의 비난을 샀다. 비판이 거세지자 한인회장들은 곧바로 "신중치 못했다" 는 사과문을 전하기도 했다. 한인 목회자들도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인들의 추모시위가 계속 이어졌다.

## 1위



### 1위. 보스톤 한인 사회도 뒤흔든 세월호 참사

올해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세월호 참사는 미국의 한인사회도 뒤흔들었다. 젊은 세대, 특히 젊은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추모 집회가 보스톤에서 몇 차례 열리기도 했고, 이와 같은 추모 집회에 반대하는 한인회장들과 일부 보수 단체들의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5월 18일 하버드 스퀘어에서는 한인주부가 중심이 되어 가족들을 포함한 60여명이 추모 시위를 벌였

## 2위



### 2위. 전명진 최초 한인 판사 탄생

인권 변호사 전명진 씨는 지난 9월 매사추세츠 사상 최초의 한인 판사로 임명, 11월 승인받았다. 전 판사는 "매사추세츠 판사로서 봉직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판사가 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4살 때 어머니, 두 동생과 함께 뉴

▶▶3면으로 계속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튼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롱 펌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2면에 이어서

육 브루클린으로 건너와 단돈 46불로 시작한 이민의 삶은 판사가 되기까지 결코 순탄하지 못했다. 학자금 없이 보스턴대학(BU)을 자퇴하고 체인스토어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서퍽 야간 대학원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전 씨는 이민사회에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안겨주었다.

3위



3위. 한인회장 선거 무산, 여전히 후보 없어

제 39대 뉴잉글랜드 보스턴 한인회장 후보 등록이 지난 10월 31일로 마감되었지만 현재까지 회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회장직 이취 임식을 겸한 한인회 연말파티 또한 내년으로 잠정 연기됐다.

지난 11일 소집된 이사회는 내년 3월 정기총회 전까지 현 집행부가 현행 체제를 유지해줄 것을 부탁했으며 한선우 회장은 이를 수락했다고 한인회보가 지난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선우 회장은 3월까지 한인회장 직무대행의 비상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이사회는 추천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회장 직을 수락하지 않아 차기 한인회장이 언제 결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4위



4위. 변호인, 명량, 군도 등 한국영화 보스턴 상륙

한국에서 천만 관객을 동원한 '변호인'을 시작으로 한국의 주요 흥행 영화들이 보스턴 극장에서 줄지어 개봉했다.

2월에 개봉한 송강호 주연의 '변호인' 상영에 한인들은 좋은 반응을 보였다. 8월 초 개봉한 '명량'은 3주간 상영하며 보스턴에서 개봉한 한국영화 사상 최대 관객 수를 끌어모아 한국영화가 흥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와 같은 흥행세를 이어 지난 8월 '명량', '군도', '해적' 이 잇따라 개봉했지만 '군도'와 '해적'은 출연진의 화려한 라인업에도 불구하고 조기종영을 맞으며 흥행에 실패하는 안타까움을 보이기도 했다.

5위



5위. 한인 3세 대니얼 고, 월시 시장 수석 보좌관 임명

연초 한인 3세로 마티 월시 시장 수석 보좌관으로 임명된 대니얼 고는 한인들과 보스턴 정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할 한인 사회의 자랑이다.

김치와 불고기 등의 한식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대니얼 고는 보스턴코리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니얼 고는 미국 대사로 지낸 고광림 박사의 손자며 매사추세츠 보건부 장관을 지냈던 고경주 박사의 아들이다.

6위



6위. 웨장암 말기 최형철 씨 돕기 모금운동

도요타 자동차 사고로 17년간 전신 마비로 누워있는 아내를 지극정성 간호한 최형철 씨가 지난 9월 웨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힘든 상황에 놓인 이웃을 돕기 위해 보스턴 한인들이 골프 대회, 바자회 등의 각종 모금 행사를 주최해 연말연시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골프대회를 주최한 북부보스턴 일요골프회의 김하동 씨는 \$4,460을 최 씨 가정에 전달했다. 성금은 도요타와의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쓰이며 현재 최 씨는 매스제너럴 호스피털(MGH)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7위



7위. 엄성준 총영사 부임 및 박강호 총영사 이임

엄성준 총영사가 박강호 총영사를 이어 지난 4월 3일 보스턴 총영사로 부임해 한인사회의 '변화와 창조'를 이루어내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4면으로 계속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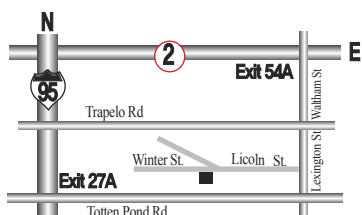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p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3면에 이어서

엄 총영사는 임기를 앞두고 “한인 사회의 위상을 세우고 더 나아가 뉴 잉글랜드 지역과 한국간의 정치, 경제, 학술,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박 전 총영사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매사추세츠 면허증과 교환할 수 있도록 교민들의 편의에 힘썼으며 이외에도 한국문화 행사 후원 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했다.

8위



8위. 이승철 하버드 무료 자선 콘서트

지난 8월 29일 가수 이승철이 보스톤을 찾아 한인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다.

19명의 탈북청년합창단과 함께 준비한 무료 자선 콘서트 드림 온 (Dream ON: One Nation)이 하버드 대학에서 열려 천여명의 인파를 동원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날 콘서트는

통일을 염원하며 탈북 청년들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한편 ‘홀로 아리랑’ 과 ‘그 날에’ 를 선보인 이날 콘서트에는 ‘희야’, ‘네버엔딩 스토리’ 등 이승철의 히트곡 10여곡이 이어져 관객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9위



9위. H마트 캠퍼리지점 개장

미주 전체 H마트 매장 중 처음으로 시내 중심가에 문을 연 H마트 캠퍼리지점이 지난 4월 그랜드 오픈을 가졌다.

캠퍼리지 주민들은 H마트 2호점이 새로 개장하는 소식에 열렬한 환호를 보냈으며 캠퍼리지점은 이내 다민족 고객들을 끌어모으며 대표적인 아시아 식품점으로 입지를 탄탄하게 굳혔다. 실내 공간은 벌링턴 지점보다 좁아 쇼핑카드를 사용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고객들의 좋은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H마트가 들어서면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던 롯데 식품점이 문을 닫았고 주변의 소규모 한인 식품점들 또한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0위



10위. 해외금융 자산 신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해외금융 자산 보고(F8938)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연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금융 자산 금액이 \$75,000 혹은 이를 초과하거나, 연말 잔액이 \$50,000 혹은 이를 초과한 경우(기혼자 합산 신고자의 경우 각각의 두 배에 해당되는 금액) 자산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1만달러 이상은 재무부, 5만 달러 이상은 IRS(국세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 감사에서 미신고가 적발되면 벌금이 징수되거나 심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dyoo9146@bostonkorea.com

독자가 뽑은 올해의 10대 한인뉴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코리아가 올해 특별히 독자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기획한 (독자가 뽑은 올해의 한인사회 10대 뉴스)에도 역시 세월호 참사가 단연 압도적인 기사로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월드컵으로 하나된 한인들, 보스톤 대학(BU) 여대생들의 창업, 아이스버킷 챌린지 열풍 등이 선정되었다.

참여한 독자들 중 아이패드 미니 상으로는 문수정 씨를, \$50 상품권 상으로 강영빈 씨를 선정했다. 이외 김수정, Yeana Kim, 이영민, 유혜인 씨를 선정해 한국배 1박스 상품권을 증정기로 했다.

▶문수정 씨가 선정한 올해의 뉴스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번 이벤트의 주제를 보자마자 세계 단박에 떠오른 뉴스가 있는데요 바로 거대 자동차회사(도요타)에 혼자 외롭게 대항하고 계시는 최형철님 소식입니다. 한 10년전 쯤이었을까요? 교회 지인분께 한 차례 소식을 접했던 뉴스였는데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제게 참 많이 놀라기도 하고 같은 한국

사람으로 그분의 올곧은 믿음이 참 좋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한 두달 전에 접한 그분의 투병소식에 전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었더랬죠.. 그리고 순간 제 자신이 한심해지기까지 했어요. 10년도 넘는 시간동안 나는 왜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있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예요.. 그리고 왜 나쁜 일은 좋은 사람에게만 생길까 하는 믿음의 의문까지도 들 어 한동안 마음이 참 힘들었죠. 하지만 그계기로 앞으로 제 인생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도 했었기에 당연히 이 뉴스가 제게는 가장 의미있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분의 뉴스를 잊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두번째로는 매사추세츠 주의 첫 번째 한인 판사님의 뉴스입니다. 그동안 동양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느 대학교 첫번째 총장이다, 어디서 첫번째 대표다 하는 뉴스를 접할때마다 그냥 그러러니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같은 한국사람이 그것도 법으로 심판하는 무거운 자리에 오르셨다니 참 많이 기쁘고 신기했

▶▶5면으로 계속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세월호 관련 뉴스, 독자선정 1위

▶▶4면에 이어서

어요. 앞으로 저희 나라 사람들의 많은 활약이 있기를 기대하게 되는 뉴스였습니다.

▶강영빈 씨가 선정한 올해의 뉴스

제가 뽑은 한인뉴스는 우선 세월호 관련 한인 회장들의 성명서 및 보스톤 주부들의 항의 시위입니다.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를 접하고 5월 중순 보스톤에 왔을 때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나 하는 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때 받았던 보스톤의 인상이 강해 이 기사를 1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어쩌면 수치스러울 수 있는 사건을 하버드 대학교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한국분들을 보면서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에도 한국보다 결코 덜하지 않은 아픔이 있고 한국의 부정을 바로 잡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어 찡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는 (이벤트 기사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요?) 월드컵의 열기를 담은 사진 기사입니다. 세월호 기사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만, 이번 기사 역시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월드컵의 열기를 보스톤에서도 느낄 수 있어 신선했습니다. 저도 다니는 교회에서 친구들과 월드컵 경기를 봤었는데 당시 사진 기사를 보면서 축구에 대한 열정은 역시 어딜가나 찾을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은 워낙 식당이 많아서 교회에서 축구를 보는 경우는 많이 없다는 것이지만, 이 또한 이민 커뮤니티의 색다른 면이 아닌가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dyoo9146@bostonkorea.com

# 언어장벽과 정보부족, 보험혜택 장애물 되선 안돼

헬스커넥터, 소수민족 언론사 기자회견 열어

23일까지 플랜 정하고 프리미엄 결제해야 혜택 받는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헬스커넥터가 주최한 소수민족 언론사 기자회견이 지난 15일 월요일 매사추세츠 오퍼레이션 커맨드 센터(MOCC)에서 열려 중국, 브라질, 아이티 등 10여개의 다국적 언론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헬스커넥터 진양 대표는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는 23일까지 보험을 신청,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정하고 한 달치 프리미엄을 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양 대표는 “이민자들도 보험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언어의 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며 스페니시와 베트남어를 포함한 8가지 언어로 보험 신청을 돕는 지역 네비게이터(Navigator)를 적극 활용하길 권장했다. 한국어는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헬스커넥터의 콜센터(877-623-6765)는 모든 언어의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부탁해 콜센터에 연결 후 한국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주지사 프로젝트 딜리버리의 특별 보좌관 메디애드 코헨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은 종이로 신청해도 되지만 즉각적인 피드백이 없어 서류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경우 엄청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 며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패널로는 진양 대표와 코헨 특별 보좌관, 메디애드 디렉터 크리스틴 톤, 헬스케어포올 상무 이사 에이미 휘트콤 슬래머가 참석했다.

공개가입기간은 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23일을 놓친 사람들은 1월 23일까지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헬스커넥터 웹사이트(www.mahealthconnector.org)를 통해 하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헬스커넥터가 지난 15일 소수민족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 민주평통 유엔 북한인권개선 촉구 성명서 발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통을 포함한 뉴잉글랜드 지역 통일 안보 관련 인사들은 지난 15일 월요일 유엔 북한인권 개선안 표결에 앞서 의견을 모으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뉴잉글랜드 지역 단체들이 공

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강원 재향군인 회장의 제안에 따라 한국 정부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인준, 이를 공식 채택하여 김성혁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 회장이 북한인권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표결에 반대하는 러시아, 중국, 쿠바, 미얀마, 이란, 시리아 등 18개국에 영문 촉구 서한을 발송하여 자국과의 이해 관계를 넘어 북한의 기본 인권에 주목해 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최덕중 6.25 참전용사회 회장, 강경신 7.27 정전기념사업회 회장, 김성혁 민주평통 회장, 김희선 여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http://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 풍성한 신년맞이 축제 '퍼스트 나잇' 만끽하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2014년이 얼마남지 않았다. 아쉬움은 뒤로 한 채 남은 연말을 알차게 보내고 힘찬 새 해를 맞이하고 싶은 한인들에게 보스톤 '퍼스트 나잇' 축제를 소개한다.

퍼스트 나잇(First Night) 축제는 보스톤 커먼, 코플리 스퀘어, 다운타운 인근에서 각종 퍼레이드, 미술관 방문, 발레 공연, 연극, 퍼펫쇼, 서커스 워크샵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신년맞이 축제다. 31일 당일에는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이 오전부터 자정 카운트다운까지 즐기게 진행된다. 이날 행사의 프로그램은 퍼스트 나잇 홈페이지(firstnightbosto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버튼' 을 구입하면 각 행사와 프로그램이 정해 놓은 선착순 인원내 한해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옷핀으로 옷에 부착할 수 있는 배지 형태의 버튼은 \$10로 '퍼스트나잇'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구매할 수 있다. 코플리와 퍼네일 홀에 위치한 보스틱스 부스(BosTix Booth)나 하버드 북스토어, 제이피릭스(J.P.Licks), 일부 बैं크 오브 아메리카와 CVS에서도 찾을 수 있다. 4살 이하

어린이는 무료다.

이날 MBTA 전철 운행은 새벽 2시로 연장된다.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전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 ▶ 불꽃놀이

한 해의 마지막 순간을 세며 자정이 되는 순간 다들 들뜬 마음으로 새 해를 축하하는 카운트다운은 단연 퍼스트 나잇의 묘미다. 하지만 이어지는 불꽃놀이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다.

31일 저녁 7시 보스톤 커먼에서 1차 불꽃놀이가 시작된다. 본격적인 퍼스트 나잇 불꽃놀이는 카운트다운 직후 시작될 예정이다. 코플리 스퀘어와 보스톤 커먼에서 진행되는 카운트다운이 끝



나는 순간 항구(Harbor)에서 밤바다의 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쇼가 이어질 예정이다.

오후 11시부터 자정이 넘도록 운행하는 크루즈는 배 위에서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다. 티켓은 \$35이지만 현재 매진된 상태다.

### ▶ 얼음 조각

코플리 스퀘어에서 펼쳐지는 얼음 조각은 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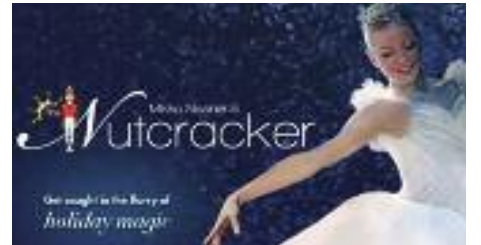
트 나잇의 가장 인기 있는 볼거리 중 하나다. '마술사' 라고도 불리는 조각가들의 손놀림을 보고있노라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조각칼 같은 섬세한 도구보다 전기톱이 많이 사용되는 이들의 완성작은 평균 30톤에서 45톤의 무게가 나간다고 한다. 31일 오전부터 시작되는 얼음 조각은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으로 더욱 신비로운 전시를 뽐낸다.



### ▶ 보스톤 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

꼭 봐야할 보스톤 공연으로 매년 손 꼽히는 보스톤 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 무대가 31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 30분에 열린다.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버튼을 구매한 사람에게 한해서 공연 당 50명씩 무료티켓을 배부하며 50명 이후부터는 20% 할인티켓을 판매한다. 보스톤 오페라 하우스 박스 오피스에서는 오전 11시, 오후 5시 30분부터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하니 일찍부터 줄을 서 기다리는 것을 권장한다.



### ▶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뮤지엄

퍼스트 나잇은 31일 하루만의 축제가 아니다.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뮤지엄(Isabella Stewart Gardner Museum)은 버튼을 구매한 사람에게 한해서 매일 300명씩 무료 입장을 허락한다.

31일 당일에는 보스톤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어린이 미술관(Boston Children's Museum)이 과학박물관(Museum of Science)이 무료 입장이다. 뉴잉글랜드 아쿠아리움(New England Aquarium) 입장료를 하나 구매하면 두 번째 입장료는 무료다. 이 모든 혜택은 버튼을 구매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니 \$10짜리 버튼 하나로 기억에 남을만한 알찬 연말을 보내길 권장한다.

dyoo9146@bostonkorea.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만길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해킹 논란 '더 인터뷰' 상영 전면 취소

극장 측 상영거부, 제작사 개봉취소  
"9.11을 기억하라"는 협박 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제작사 해킹 소동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김정은 암살 코미디극 '더 인터뷰(The Interview)'의 미주 개봉이 취소됐다.

지난 15일 보스톤코리아에서 실시한 무료 영화 티켓 이벤트가 순식간에 완료되어 영화에 대한 한인들의 큰 기대와 반응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7일 배급사 측으로부터 영화 상영이 취소되었다는 이메일이 도착했다. 이는 소니 제작사와 극장 측에서 상영을 취소한 것.

배급사인 피봇 마케팅 그룹의 조니 림 디렉터는 "영화 관객과 기사(보스톤코리아) 독자들의 안전을 생각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며 "제작사 측에서 미주 개봉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화요일 제2의 9.11테러를 암시하는 협박을 받은 소니 제작사는 이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서툰 영어로 작성된 협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니픽처스가 만든 그 끔찍한 영화를 곧 전세계가 보게 된다... 세계가 공포로 가득할 것이다. 2001년 9월 11일을 기억하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길 바란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모든 일은 소니픽처스의 탐욕으로 인함이다. 전세계가 소니를 비난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섬뜩한 경고에 극장 측이 먼저 상영을 거부했다. 과장이 커지자 소니 측도 개봉을 취소하게 된 것이다. 영화의 공동감독 에반 골드버그와 배우로도 출연한 세스 로건은 현재 모든 일정에 불참, 공식 입장을 피하는 중이다.

제작사와 FBI 관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해킹을 북한의 소행으로 짐작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전면부인하고 있다. 다만 영화개봉에 대해 "전쟁 포고 행위"라고 밝힌 바 있으며 해킹 사건에 대해 "정당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지난 11월 24일, 소니 제작사는 '평화의 수호자들 (Guardians of Peace)' 이라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내년 블록버스터급 상영예정작과 배우 및 관계자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이벤트에 참여한 독자들에게는 심심한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dyoo9146@bostonkorea.com



서울대 동창회 연말파티에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 서울대 동창회 연말파티 개최

미주 총동창회장 참석으로 더욱 풍성한 모임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동창회(회장 장수인) 연말파티가 지난 13일 토요일 렉싱턴에서 열려 50여명의 동문들이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서울대 미주 총동창회 오인환 회장이 워싱턴 DC에서 참석해 모임에 풍성함을 한층 더했다. 오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개인의 역량만으로 극복해낼 수 없는 '그룹의 힘'을 강조하며 동창회 활성화를 독려했다.

장수인 회장은 "임원과 고문, 회원, 가족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희생적으로 준비에 임해 주어 풍성하고 유쾌한 가운데 모두가 하나되는 행사가 될 수 있었다"며 동문회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연말 파티는 동문들이 마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음악 연주로 풍성했다. 기악과 출신의 음대 동문들이 준비한 하이든의 현악사중주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고 이상원 동문의 '거룩한

밤' 독창과 '화이트 크리스마스' 스트링 연주는 기립박수와 앙코르 요청을 받기도 했다.

일리노이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경일 고문은 건축물의 음악성에 관한 강연 '공간의 심포니(Symphony of Space)'을 전달했으며 이후에는 최신곡 '셰이크 잇 오프(Shake it off)'에 맞춰 전문 댄스강사에게 춤을 배우는 유쾌한 시간도 이어졌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참석자들은 장회장이 한국 방문 시 구입한 모교 배지를 서로 달아주며 학창시절을 추억하는 동문애를 다졌다.

이날 참석한 윤상래 고문은 "08학년부터 50년대 학번까지 참여했다. 친구세대가 조화를 이루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행사를 준비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대 동창회는 내년 봄 나들이 행사와 총회를 계획 중이다. 동창회 소식과 행사 사진은 홈페이지(http://sites.google.com/site/snu\_aane/)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이메일(snu\_aane@gmail.com)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 엔젤스 어린이 합창단 첫 무대 선보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엔젤스 어린이 합창단(지휘 김배규, 반주 강예림)이 지난 14일 일요일 북부보스톤교회 다문화사역 예배에서 첫 무대를 선보였다.

'목마른 사슴'과 '고요한 밤' '슈팅 스타'를 부른 합창단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더욱 성장할 모습을 기대한다는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한 합창단 어린이의 부모는 "합창을 하며 어린이들이 서로 친해졌다"며 "음악성뿐 아니라 사회성도 향상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엔젤스 합창단은 새로운 단원을 모집 중에 있다. 어린이 합창단은 5세부터 11세, 청소년 합창단은 12세부터 17세까지 모집한다. 단원 모집에 관한 문의는 978-269-4198 혹은 mcm-northboston14@gmail.com로 하면 된다.

다문화사역의 일환으로 시작된 합창단은 내년 2월 7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14주 연습을 통해 합창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여름 음악 캠프

도 기획 중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엔젤스 어린이 합창단이 지난 14일 첫 무대를 선보였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 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외교관 꿈인 2세를 위한 선배로부터의 조언

남슬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졸업생 미국 외교관 시험 합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 외교관 시험에 합격한 후 지난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2004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이사장 윤경숙) 졸업생 남슬기 씨가 지난 13일 한국학교 학생들을 위한 '선배와의 대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남 씨는 중고급과정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미국 외교관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과 임무, 혜택에 대해 설명하며 외교관의 꿈을 가진 학생들을 격려했다.

남 씨는 "한국어는 중국어와 아랍어 등 몇 개의 언어와 함께 취득하기 어려운 언어로 분류되어 있어 가장 긴 44주 간의 언어연수를 받게 되지만 한국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때 한국어 수업을 들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며 한

국학교나 집에서 한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을 권장했다.

강연의 끝으로 "미국에서 외교관이 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의외로 학력과 연령 면에서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한인 2세대들이 미주류 사회에 입문해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외교관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오는 20일 개교 40주년을 맞아

제14회 동요대회가 개최된다. 동요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63개 팀이 참가해 총 4백여명이 참석하는 대형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남 일 교 장 (508-523-5389, ksneusa@verizon.net)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졸업생 남슬기 외교관이 지난 13일 '선배와의 대답'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송구영신의 밤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회장 이동문)가 지난 12일 금요일 크랜스턴 나이트 오브 컬럼버스에서 송구영신의 밤을 개최해 150여명의 지역 한인들이 참석했다.

이동문 회장은 '받는 한인회'가 아니라 '주는 한인회'를 이번 행사의 모토로 잡고 준비했다며 도움을 준 한인 업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난 1년의 임기 동안 전폭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은 한인회 이사회와 노인회, 경제인 연합회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고 말했다.

버클리 재즈 뮤지션들의 '홀리데이 스위트 재즈 컬렉션' 과 보스톤 대학 한인 음악 동아리 소리안의 공연이 준비된 이날 행사에는 브라운 대학교 한인 학생회(KISA)가 노인회 회원들에게 컴퓨터 이용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특별히 주 보스톤 총영사관의 엄성준 총영사와 박윤주 부총영사 내외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며 민주평통 김성혁 회장, 시민협회 이경해 회장,

이동수 이북도민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12일 나이트 오브 컬럼버스에서 개최된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송구영신의 밤에 지역 한인 150여명이 참석했다

### 한 주에 한 개씩 잘못된 말 고치기 #35

이철영

## 여러분들(?) -> 여러분(O)

영어의 "everyone"이나 "you guys"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여러분'이라는 표현은 한 개의 단어이며 'everyone'처럼 모두를 뜻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들이'라는 복수화 접미사를 쓰지 않는 것이 우리말다운 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 "안녕하세요 여러분!" (O) 어느 쪽이 자연스러운가요? 후자가 더 우리말다운 표현입니다.

# 보스톤민주연합 대표 이취임식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민주연합 활동재 본부장이 지난 16일 화요일 민주연합 신입 대표로 취임했다.

2011년 7월 보스톤민주연합 창립 때부터 활동해온 황 대표는 미 동북부 5.18 민주화운동 기념회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새 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 정책에 관련하여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며 대선 때는 대선참여 100인 위원회 회원로 동참한 바 있다.

보스톤민주연합 관계자는 "민주연합의 새 대가 열린 듯 하다" 며 "창립 이래 지역 동지들과 함께 했던 날들이 기억에 새롭다" 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중앙교회 신년기도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벨몬트 소재 보스톤중앙교회(담임목사 송평구)가 1월 1일부터 3일까지 신년기도회를 연다.

송평구 담임목사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점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 특별 기도회를 갖는다" 며 "이를 통해 신앙의 기분을 다시

점검하게 될 것" 이라며 교우들의 참석을 권장했다. 한편, 보스톤중앙교회는 문화교실을 열어 영어, 음악, 컴퓨터반 등을 통해 커뮤니티를 섬기고 있으며 새해에는 리더십 훈련과 유아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 2014년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검색어 순위 3개 단어가  
사망한 배우 특색

보스톤마라톤, 월드컵, 아이  
스 버킷 챌린지의 ALS 등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구글이 발표한 올해의 매사추  
세츠 검색어는 지난 7월 자살로 생을  
마감한 로빈 윌리엄스였다. 뒤를 이  
어 월드컵과 에볼라가 각각 2, 3위  
를 차지했다.

로빈 윌리엄스는 굿윌헌팅을 비롯  
한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유머스럽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왔기

에 그의 자살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  
았었다. 로빈이 출연  
한 굿윌헌팅에서 맷  
데이먼과 함께 았았  
던 의자에는 그에 대  
한 추모가 이어지기도  
했다.

미국 축구팀의 월  
드컵 16강 진출로 인  
해 미국내에서 축구  
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졌다는 것은 이  
번 구글검색 순위에서  
반영됐다. 사망률이  
60%에 달했던 에볼라도 사람들의  
두려움 정도를 반영하듯 3위에 올랐  
다.

4위에는 지난 8월말 간단한 목수술  
을 하던 도중 합병증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한 여성 코메디언 조안 리버스  
(81)가 올랐다.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한국의 신해철의 급작스러운 사망과  
공통점은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행위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5위 또한 사망한 배우가 차지했다.  
영화 '머니볼'에서 오글랜드 아슬  
레틱스의 감독 아트 호위 역할을 맡  
았던 유명 배우이자 감독, 프로듀서  
인 필립 시모어 호프만은 지난 2월 46  
세의 젊은 나이에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

6위는 지난해의 참사를 굳건히 딛  
고 더 많은 마라톤 참가선수와 관중  
들이 모여들었던 보스톤마라톤이 꼽  
혔다. 특히 보스톤 경찰 관계자들은  
관중들의 진입마저 철저히 통제하



올해 검색 순위 1위에 오른 고 로빈 윌리엄스

는 보안 경비로 대회의 성공을 뒷받  
침했다. 7위에는 아직까지도 사라진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올랐다.

8위는 전 아내를 공공장소에서 폭  
행해 실신시킨 볼티모어 레이브스의  
러닝백 레이 라이스였다. 9위는 올해  
사생활을 고스란히 드러낸 전신 누드  
로 곤욕을 치른 제니퍼 로렌스가 차  
지했다. 로렌스 누드의 노출은 아이  
클라우드의 보안에 대한 회의를 일으  
키게 했다. 스마트 폰으로 찍은 사진  
을 아이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것에 대  
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를 주었다.

올해 매사추세츠 구글검색 10위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 열풍의 배경이  
되었던 ALS가 차지했다. 루게릭 병  
으로 잘 알려진 ALS 자선 모금을 위  
해 시작된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매  
사추세츠 주에서 시작해 전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상당한 열풍을 일으  
켰었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 의사당에서 열린 소수민족 기자회견, 주지사 드벌 패트릭이 이민사회의 권익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이민사회, 정부에 권익 주장할 줄 알아야

▶▶ 1면에 이어서

등의 소수민족 언론사 관계자 20  
여명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주지사의 이임에 아쉬  
움을 나타냈으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궁금해했다.

드벌 패트릭은 “너무 앞서 나가  
고 있는 것 아니냐”며 웃었다. “  
지금으로선 대선 출마 계획이 전혀  
없다. 1년간 가족과 휴식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한 주지사는  
“2016년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  
다. 정치에는 늘 관심이 있다는 말  
도 함께 덧붙였다.

한편, 공화당 찰리 베이커가 주  
지사가 된 것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공화당원들은 소수민족에게 관  
심이 없다”는 불만을 표출한 언론  
사들은 다음 4년에 대한 걱정과 우  
려를 쏟아냈다.

주지사 패트릭은 “이민자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익을 주  
장할 자격이 있으며 마땅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히려 이민사  
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권장했다.

이어 주지사 투표에 대해 “찰리  
베이커는 마사 코클리보다 많은 표

를 받았다. 이는 매사추세츠 시민들  
이 투표한 결과”라며 담담하게 받  
아드렸고 “다음 주지사가 성공적  
인 정치를 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주지사 드벌 패트릭은 임기 동안  
아쉬웠던 점으로 재산세 감면 정책  
을 꼽았다. “재산세는 현재 꽤 안  
정적이지만 다음 주지사가 더 노력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당부했다.

8년의 임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로 그는 “이 사회  
는 불만을 표출하는 데에는 목소리  
를 높일 줄 알면서도 정의를 얘기할  
때는 속삭일 뿐이다. 이것이 반대  
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주지사 드벌 패트릭은 내  
년 1월 7일 매사추세츠 주지사 전통  
의 론워크(Lone Walk)를 실시한  
다. 이 기념식을 통해 다음 주지사  
에게 사무실 열쇠와 성경 등을 전달  
하고 의사당 정문을 통해 떠난다.  
의사당 정문은 미국 대통령 혹은 외  
국 대통령의 방문과 주지사 이임식  
에만 열리게끔 되어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 2014 구글 최다 검색어

1. Robin Williams
2. World Cup
3. Ebola
4. Joan Rivers
5. Phillip Seymour Hoffman
6. Boston Marathon
7. Malaysia Airlines
8. Ray Rice
9. Jennifer Lawrence
10. ALS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http://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보스톤 고교생들 수업 중단 퍼거슨 항의 시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수십명의 보스톤 공립학교 학생들이 16일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수업 대신 퍼거슨과 뉴욕시에서 흑인남성을 살해한 경찰들을 불기소 하기로 한 대배심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택했다.

AP의 보도에 따르면 매디슨 파크 하이스쿨의 학생들도 수업을 두고 거리로 나섰다. 25명의 학생들은 보스톤 MBTA 더들리 역에 모여 경찰서로 향했다. 10학년인 줄리언 에스칼레로 학생은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흑인들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경찰들에게 더 이상 이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100여명의 학생들은 사우스 스테이션 인근으로 모여들었다.



보스톤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에서 시위 수업에 나섰다.

이들의 시위는 결코 단순한 수업거부가 아닌 수업의 연장이었다.

보스톤 교육청 대변인 리 맥과이어씨는 그동안 교사들 그리고 학교장들은 학생들과 함께 “모두에게 건설적인 학습기회”인 시위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왔었다고 밝혔

다. 그는 “우리는 지금껏 학생들에게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왔다”고 밝혔다. 맥과이어씨는 이번 시위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일부 교사들이 같이 행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 헤로인 과다복용사망 최근 급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이번 달 들어 58명이 헤로인 및 기타 약물 과다섭취로 사망하는 등 최근 주 약물복용 사망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 경찰이 밝혔다.

보스톤 글로브의 16일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이번 약물 사망 사건은 도심, 시골 및 교외 지역 등 주 전역에서 발생해 주 경찰은 급증에 대한 뚜

렷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경찰은 현재 증거들을 취합해 유사성이나 공통적인 패턴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경찰청장 팀 알벤은 “진정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그들이 불법 약물 복용자라고 해서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 에블라 케이스로 의심한 자 한 사람이 생기면 모두가 경각심

을 가지고 충분히 대비했다고 말한다. 그에 비해 약물복용 사망은 너무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공중보건부에 따르면 약물 과다복용 사건은 2010년 526건이었지만 2013년 863건으로 급증했다. 2014년 자료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 보스톤 경찰, 라이드 셰어 서비스 주의 당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일요일 새벽 보스톤 인근에서 라이드 셰어 서비스를 이용한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3건 발생했다. 이에 보스톤 경찰은 우버(Uber)와 같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라이드 셰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4일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보스톤 인근에서 각기 다른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도체스터, 울스턴-브라이트 지역, 패뉴어홀과 도체스터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늦은 시간 귀가하기 위해 라이드 셰어 서비스를 이용했다. 가해 운전자는 피해 여성들에게 돈을 제공하고 몸을 만질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잠든 사이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3건의 성추행 사건 중 2건에서 피해 여성들이 우버를 사용했다고 보스톤 경찰은 말했다. 그러나 우버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우버 운전자가 연루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보스톤 경찰은 조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용의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

우버와 같은 라이드 셰어 서비스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기존의 전통적인 택시 사업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금과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라이드 셰어 서비스 회사가 운전자를 고용할 때 신원 조사를 하여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jsi@bostonkorea.com



우버 운전 기사가 여성 승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보스톤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가격별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말 선물은 누구나 좋아하는 정관장 제품으로 하세요!

연말사는 BIG 이벤트

이벤트 1: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50g FREE. 성원에 감사하여 12월 25일까지 연장 실시합니다. \$46 상당 선물

이벤트 2: 홍삼추출액 10% 할인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보스톤 유일의 홍삼 전문매장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전화주문 서비스

781-238-0303

FedEx 로 주문후 1~2 안에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 / \$100 이하 \$5 배송비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올해 독한 H3N2 플루 극성

현재 미국내 10개주에서는  
플루 환자 만연  
백신이 약해도 플루 백신  
반드시 맞아



플루백신을 맞으면 완전히 플루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감염 가능성은 낮출 수 있으며 가벼운 증상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의 플루는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의 백신이 가장 크게 유행하고 있는 플루 바이러스를 잘 방어하지 못하면서 플루의 확산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플루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플루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존 맥도걸 박사는 “플루 백신의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모든 연령의 사람들은 결코 플루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유행하고 있는 플루 바이러스는 H3N2이다. 이 바이러스는 제네바에서 열린 올해의 플루 백신 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백신에 포함키로 타입들을 결정된 3주 후 유행하기 시작해 결국 올해 백신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올해 백신에는 지난 2009년 크게 유행했던 H1N1 바이러스를 포함한 타입 A와 B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올해 유행하고 있는 H3N2는 일반적으로 H1N1 보다 훨씬 독한 플루 증세를 일으키고 있다. 질병 전문가 윌리엄 샤프너 박사는 “H3N2는

역사적으로 더 심각한 병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올해 플루는 폐렴 등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10개 주에서 플루가 유행하고 있으며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그리고 알래스카 등지에서는 플루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플루 시즌이 예년보다 훨씬 일찍 시작했다고 우려를 전했다.

플루 바이러스는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백신들에 비해 효력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지난해 비교적 효력이 좋았다고 평가된 플루 백신의 경우 어린이들에게는 46-56퍼센트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65%의 효력만 있었다. 효력이 있었다는 말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 플루에 걸리지 않은

확률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여전히 44%에서 61%가량의 플루에 감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백신접종은 최소한 30% 이상의 플루 감염 확률을 줄여준다. 또한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증상을 경미하게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지는 못했지만 심각한 합병증을 겪지 않도록 하는데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플루에 감염되었을 경우 48시간 이내라면 1차 진료의에 의뢰해 플루 항바이러스제를 맞는 것도 좋다. 항바이러스제로는 타미플루 또는 리렌자가 있다. 65세 이상이거나, 임신부 5세 이하, 특히 2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hsb@bostonkorea.com



사우스 스테이션에서 출발하는 평와 버스는 안전 문제로 작년 면허가 취소되었다

## 중국 평와 버스 내년부터 운행 재개

안전 문제로 1년 이상 면허 정지  
40만 달러 투자 후 연방 정부 승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각종 안전 사고를 일으킨 끝에 운행이 금지되었던 평와 버스(Fung Wah Bus)가 내년에 다시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보스톤 다운타운과 뉴욕을 연결하는 평와 버스는 편도 10달러에 운행되는 저가 버스로 유명하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와 버스는 보스톤과 뉴욕을 연결하는 가장 저렴한 대중 교통이었다. 그러나 안전상의 이유로 작년에 연방 정부에서 평와 버스의 운행을 금지시켰다.

2005년에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평와 버스에 화재가 발생해 45명의 승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2006년에는 평와 버스 차량이 전복되어 승객 30여명이 부상을 당했고, 2007년에는 35명의 승객을 태운 평와 버스가 매쓰 파이크 울스턴-브라이트 톨게이트 부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

를 일으켰다. 2008년에는 뉴욕 시에서 덤프 트럭과 충돌 사고를 일으켜 승객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평와 버스에 대해 2013년 3월, 매사추세츠 정부가 조사를 벌여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다. 평와 버스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 일부에서 문이 망가지고 차량 골격이 부서져 있었으며, 안전 보고서가 조작되어 있었다.

평와 버스는 운행 면허가 취소된 이후 약 40만 달러를 들여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벌였다. 차량 수리와 운전사의 교육, 안전 전담 매니저를 고용하고, 운행 재개를 위해 6개월에 걸쳐 연방 정부를 설득한 끝에 운행 재개 허가를 받았다.

보스톤 사우스 스테이션과 뉴욕 차이나타운을 연결하는 평와 버스는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운행이 재개된다. 보스톤 글로브는 1년 이상 운행이 금지되었던 평와 버스가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jsi@bostonkorea.com





##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과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을 매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arangnim

EXCLUSIVE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LEXINGTON



단독주택  
**For sale: \$ 799,000**  
2 BEDS, 2.5 BATHS, 1,811 SQ FT

ACTON



CONDO(2014년 새집)  
**For sale: \$ 699,900**  
4 BEDS, 3 BATHS, 3,200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

NATICK



CONDO  
**For sale: \$ 489,900**  
2 BEDS, 2 BATHS, 1,303 SQ FT  
NATICK MALL 과 PRIVATE 통로로 연결되어 있음

# 소니 '더 인터뷰' DVD, VOD 출시 계획 없다

### 미 NSC "책임자들 정의의 심판 받을 것"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테러 위협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상영을 전격 취소한 소니픽처스는 17일(현지시간) "더 이상의 '더 인터뷰'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DVD 또는 주문형비디오(VOD) 형태의 출시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소니픽처스는 해커조직 'GOP(평화의 수호자)'가 '더 인터뷰'를 상영하는 영화관을 테러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주요 영화관들이 상영 계획을 잇따라 취소하자 결국 25일로 예정된 영화 개봉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익명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수사당국은 소니픽처스에 대한 해킹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17일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며 "적절한 때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NSC는 성명을 통해 "사이버공격의 책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가능한 대응 방안을 다양하게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GOP는 전날 익명을 보장하는 웹사이트 페이지스트빈을 통해 "이 영화를 통해 재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단죄하겠다. 극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이라며 "9.11을 기억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18일 첫 시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뉴욕 랜드마크 선사인 영화관이 행사를 전격 취소한데 이어 미국 41개주에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카마이크 시네마'와 리걸시네마, 캐나다 극장체인 시네플렉스 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영화관들에서 상영 취소 사태가 잇따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BI는 '더 인터뷰' 상영을 계획 중이던 영화관들에 "영화의 제작, 유통, 홍보에 관여한 누구든 사이버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주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chung@news1.kr



## 미·쿠바, 국교 정상화 공식선언...반세기만의 화해

### 오바마 "우리는 모두 같은 미주인(美洲人)"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쿠바가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양국 사이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오 성명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양국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실패한 '낡은 접근방식'을 끝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변화를 통해 미국과 쿠바 양국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할 것이다"며 "이는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회와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논의"를 갖고 반세기 동안 이어진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문제를 논의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쿠바와 봉쇄정책은 효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국이 워싱턴과 아바나에 서로 대사관을 개설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쿠바에 대한 테러리즘 지원국 지명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불과 150km 떨어져 있을 뿐인데도 냉전시대의 적성국 관계였던 양국 간의 화해를 주선하는 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제재가 우

리의 도움의 대상인 쿠바 시민에게 짐이 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쿠바 시민들에게 미국은 우정의 손을 뻗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의 공용어인 스페인어로 "토도스 소모스 아메리카노스"(Todos somos Americanos)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미주인(美洲人)이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같은 시간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대통령은 앞서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 대사관 개설 등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개선 문제를 논의했다.

이로써 양국은 반세기 이상 이어온 단절 관계를 청산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교류와 교통에 다시 물꼬를 트게 됐다.

미국은 지난 1961년 쿠바와 단교하고 다음해엔 금수조치를 취했다. 1959년 라울의 아버지인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켜 공산 정권을 수립한 뒤 쿠바 내 미국 기업의 재산을 몰수한 데 따른 것이다. 쿠바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이날 간첩 혐의로 체포돼 약 4년째 수감 중이던 미국 개발원조청(USAID)의 계약직원 앨런 그로스를 석방했다. 또한 약 20년간 수감 중인 미국인 정보원도 곧 석방할 예정이다. 미국도 이에 화답해 쿠바인 3명을 풀어줬다.

acenes@news1.kr



**태양**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781.391.6200**  
**781.391.7700**

78 SWAN ST. MEDFORD, MA 02155  
FAX: 781.827.0867 EMAIL: SUNAUTOBODY@YAHOO.COM  
WEBSITE: http://sunauto-boston.haninis.com/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Century 21**  
Avon

**김택운**  
Realtor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핫스톤  
속 눈썹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Office.617.795.0095, Cell.617.970.6038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 미연준, 내년 금리인상 가능성 강신호

### '상당기간 초저금리 유지' 삭제 '금리인상 전 인내심' 채택

(워싱턴=뉴스1) 김정환 기자 =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17일(현지시간) 내년에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강한 신호를 보냈다.

이날 연준은 16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올해의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에서 초저금리를 '상당기간'(considerable time) 유지한다는 문구를 수정하며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상당기간 초저금리 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질 것'(be patient)'이라는 문구로 대체했다.

또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일본, 러시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견하고 미국의 경제에 대해선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성명은 "현재의 평가에 기초해 위원회는 사실상 제로수준(0~0.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통화정책 정상화에 착수하는 데 인내심을 가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고 경기와 고용, 인플레이션 추이 등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준은 또한 이번 성명서가 '상당기간' 초저금리 유지하겠다는 기존 성명서의 문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위원들은 미국의 경제 성장이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직 약세인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주시하며 금리인상 속도에 천천히 다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와 대결하기 위해 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떨어뜨린 바 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5.8%로 6년래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최저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에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내년 중반쯤이면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원들은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부진 속에서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3개 값과 하위 3개 값을 제외한 수치로 집계된 미국의 내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2.6~3.0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과 동일한 수치다.

위원들은 또한 실업률이 내년 말엔 5.2~5.3%로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고용시장을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연준은 내년엔 유가 하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1~1.6%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은 내년에 소폭 하락하고 2016년 말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연준이 이날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위원들은 내년 말 기준금리(연방기금금리)가 1.125%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9월 1.375%보다 낮아진 것이다. 또한 2016년 기준금리 전망치는 기존 2.875%에서 2.5%로 내렸다.

연준은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 중이다"며 최근의 강력한 고용지표는 "노동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연준은 유가 하락과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 하락에도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감은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이는 연준이 미국의 경제 회복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다.

이날 리처드 피셔 달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나라야나 코치라코타 미니아폴리스 연은 총재,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등 3명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이날 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차례의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옐런 의장은 또 유가 하락으로 당분간 낮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될지만 이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경제가 4분기에 2%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2% 내외로 상승하며 연준의 성명에 뜨겁게 반응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69%, 스탠다드앤amp;푸어스(S&P)500지수는 2.04%, 나스닥종합지수는 2.12% 각각 올랐다.

acenes@news1.kr

## 힐러리 "쿠바 적대관계 끝낸 오바마 지지"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과 쿠바 국교 정상화에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클린턴 전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펼쳐온 고립 정책으로 카스트로 정권은 단단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말했듯 쿠바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 세계에 대한 가치, 정보, 물질적 안락함 등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우리의 중요한 목적에 대한 초점은 유지하면서도 쿠바에 대한 정책을 변화하려는 바람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과 자유를 위한 쿠바 국민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클린턴 전 장관은 쿠바 감옥에 5년간 수감됐다 풀려난 앨런 그로스

를 환영하는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오바마 1기 행정부 당시 국무장관을 역임하면서 그의 석방을 추진했다고 언급하며 "앨런이 마침내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제기된다.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회복한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오늘의 (쿠바)정책 변화는 미국 법과 의회의 목적과 정신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바계인 메넨데즈 의원은 쿠바 정책에 있어 민주당 내 드문 강경파로 꼽힌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ejjung@news1.kr



## 젯 부시, 2016년 미대선 출마 가능성 피력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동생 젯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2016년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겠다고 16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밝혔다.

젯 부시 전 주지사는 내년 1월 선거자금 모금하는 정치행동위원회(PAC)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전하며 "PAC를 통해 미국이 현재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미국 전역의 국민들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PAC의 목적은 모든 미국인들이 기회 및 번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자 및 사상, 정책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에서 차기 대선 도전 의지를 시사한 것은 이번 부시 전 주지사 처음이다. 부시 전 주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서면 아버지와 형 부시에 이어 부시 집안 세 번째 대선 후보자가 된다.



## 미세먼지 자폐아 출산 위험 2배 높인다 - 하버드 의대 연구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자폐아 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대 연구팀은 임신 후기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생활한 산모의 아이가 그렇지 않은 산모의 아이에 비해 자폐아로 태어날 확률이 두 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연구팀은 1989년부터 여성 11만6430명과 그 자녀를 추적 조사하는 방식으로 자폐아 출생률과 미세먼지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해왔다. 조사 대상 자녀들은 1990년부터 2002년 사이 태어났다.

연구를 이끈 마크 웨이스코프 전염병학 교수는 "미세먼지와 자폐아 출산 빈도 사이의 연관성은 오직 만삭의 산모가 미세먼지에 노출된 경우에만 관찰됐다"며 "임신 초기의 산모나 출생 후 아이가 미세먼지에 노출된 경우에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수한 오염 물질에 둘러싸인 미세먼지가 뇌 성장을 방해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한편 자폐 질환은 유전적인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자폐아 출생률은 유전적인 요소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했다. 이에 관련 학자들은 자폐질환의 유전적 이유가 아닌 환경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미국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50명 중 1명꼴로 태어난 자폐아가 2010년엔 68명 중 1명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reenaomi@news1.kr

# TASTE OF KOREA

# 코리아나

##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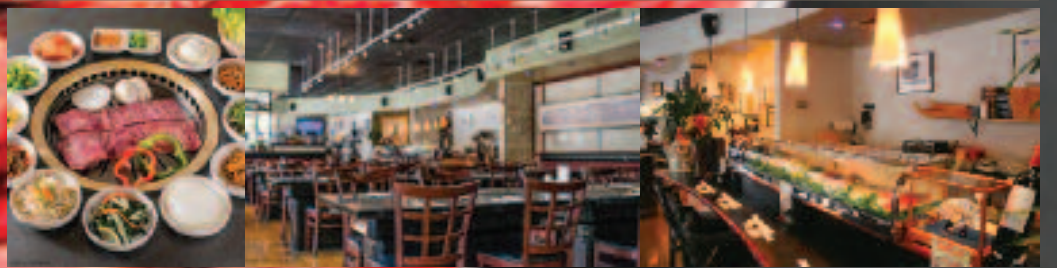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악싱  
각종 펌

올가닉 트리트먼트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 세월호 특별조사위 사실상 구성 완료... 혐의로 예고

### 여 추천 특별조사위원 놓고 부적격 논란 공안통 대 민변 충돌 가능성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총 17인으로 구성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천 몫 행사로 15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대법원 추천 몫 2명이 남아있긴 하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진상조사소위원회장이 모두 결정된 만큼 사실상 위원회 구성의 윤곽이 잡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8개월 만에 그동안 제기됐던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과 미흡했던 구조 과정을 밝힐 기틀이 잡힌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앞날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과정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경험을 되짚어 볼 때 특별조사위 구성 면면에서부터 내부 갈등은 언제든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의 적격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추천 주체들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공안사건을 둘러싸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검찰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공존하게 됐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천한 특별조사위원 최일숙·김진 변호사는 모두 민변 출신이다.

고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의 소재인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로 대표적인 공안 검사 출신이다. 현재 통합진보당 해산국민운동본부의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있다. 이에 반해 최 변호사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민변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었다.

김 변호사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변 사무차장을 지냈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민변 여성인권위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추천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세월호 희생자 가족 5인 협의체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추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을 발표하고 있다

장을 지내기도 했다.

사실상 특별조사위 내에서 공안통 변호사와 민변 출신 변호사간 한 판 승부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추천 위원을 놓고 벌어지는 불협화음은 이 뿐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야당은 새누리당의 나머지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가족대책위는 조대한 법무법인 하우팀 대표변호사 등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은 현 정부 인수위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이들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함부로 하는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별조사위원을 먼저 선정한 것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고 그것을 보고 새누리당도 선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특별조사위의 사무처 예산과 인사권, 조사 대상, 회의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언제든 각 주체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특별조사위의 앞날에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내년 1월1일 출범하기로 돼 있는 세월호 특별진상조사위는 사무처 규모 등을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 만큼 공식 출범은 1월 7일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sanghwi@news1.kr

# Cheap or Quality?

##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b>Level 5</b>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b>Level 4</b>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Quincy College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iddlesex Communit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b>Level 6</b>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DEC. 19, 2014 - DEC. 25,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http://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 Best Christmas EVER SALE!

Enjoy the merriest Christmas feast with a little help from Hmart this holiday season.  
 즐거운 크리스마스 만찬도 H마트와 함께 하세요.

**FUJI APPLE 후지 사과**  
**\$1.49**  
 lb.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벌집 삼겹살  
**\$5.99**  
 lb.

**TONGTONGBAY OYSTER**  
 통통배 청정생굴  
**\$3.49**  
 8oz./pkg.

**HARU HARU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99**  
 15 lbs.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삼계탕  
**\$9.99**  
 1.76 lbs.

**PENGUIN CANNED MACKEREL/MACKEREL PIKE**  
 펙귄 고등어/꽂치 통조림  
**\$1.99**  
 14.1oz.

**LIVING GLORY STAINLESS STEEL TWO HANDLE POT**  
 리빙 글로리 양수 냄비  
**\$19.99**  
 18cm/ea.

**WHOLE CHICKEN**  
 통닭  
**\$1.79**  
 lb.

## FREE 2015 CALENDAR

SHOW US YOUR SMART CARD AND YOU WILL RECEIVE A FREE 2015 HMART CALENDAR.

H마트 2015년 달력을 스마트 카드 고객에 한해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 Fall in Love with Hmart's CROWN SNACK FEST!

크라उन 과자 특판전

UNMATCHED QUALITY. UNBEATABLE PRICES. KOREA'S FAVORITE BRAND ON SALE AT HMART.

\*일부품목은 +1이 아닌 가격행사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p><b>Singo Pear</b> 신고배 박스  <b>\$25.99</b>          box</p>	<p><b>Crown Broccoli</b> 크라운 브로컬리  <b>\$0.99</b>          lb.</p>	<p><b>Koimo Sweet Potato</b> 코이모 고구마  <b>\$1.49</b>          lb.</p>	<p><b>Scallion 파</b>  <b>2\$1</b>          bun./for</p>	<p><b>Beef Flank Steak</b> 앞치마 양지 (육개장)  <b>\$6.99</b>          lb.</p>	<p><b>Beef Bones</b> 냉동 사골  <b>\$1.49</b>          lb.</p>
<p><b>Spanish Mackerel</b> 삼치  <b>\$2.99</b>          lb.</p>	<p><b>Cooked Whelk Meat</b> 골뱅이살  <b>\$11.99</b>          lb.</p>	<p><b>CHAMPMAR Head-On White Shrimp</b> 머리 새우  <b>\$13.99</b>          2 lbs./30-40's/pkg.</p>	<p><b>TONGTONGBAY Frozen Small Yellow Croaker</b>  <b>\$2.49</b>          1 lb./pkg.</p>	<p><b>Kyong Gi Rice</b> 경기미 40 lbs.  <b>\$29.99</b></p>	<p><b>OHSUNG Hong Ramyun</b> 오성 홍라면  <b>\$2.99</b>          Hot/Mild 4.2oz. x 5ea./pkg.</p>
<p><b>GOMPYO Wheat Flour</b> 곰표 밀가루 5.5 lbs.  <b>\$3.99</b></p>	<p><b>ALCHAN SOONDAE</b> Fully Cooked Korean Brand Link 알찬 순대 1.5 lbs.  <b>\$9.99</b></p>	<p><b>K TOWN Dukboki</b> 케이타운 그때 그맛 국물 떡볶이 All Flavors/1.07 - 1.32 lbs.  <b>\$4.99</b></p>	<p><b>HAIOREUM Steamed Bun</b> 해오름 호빵 All Flavors/9oz.  <b>2\$3</b>          ea./for</p>	<p><b>HAIOREUM Korean Honey Citron Tea</b> 해오름 유자차 2.2 lbs.  <b>\$4.99</b></p>	<p><b>HAIOREUM Soy Soy Delicious Soymilk</b> 해오름 쏘이쏘이 달라셔스 두유 All Flavors/6.76fl.oz. x 24ea./pkg.  <b>\$9.99</b></p>
<p><b>ORGANIC VALLEY Organic Milk</b> 유기농 밸리 유기농 우유 All Varieties/64fl.oz.  <b>\$4.49</b></p>	<p><b>CHAOKOH Canned Coconut Milk</b> 차코 코코넛 우유 13.5fl.oz.  <b>2\$3</b>          ea./for</p>	<p><b>HORMEL FOODS Spam 스팸</b> Classic/25% Less Sodium/Lite - 12oz.  <b>2\$6</b>          ea./for</p>	<p><b>Heart Slippers</b> 하트 실내화 HY-A085/All Colors/Pair  <b>\$2.99</b></p>	<p><b>Plastic Dressing Container</b> 플라스틱 드레싱 통 Red/White/ea.  <b>\$1.49</b></p>	<p><b>CYCLEAN Hand Spin Cleaner</b> 싸이클린 핸드스핀 청소기 ea.  <b>\$37.99</b></p>

# '7인회'조작·회유? 청 민정수석실 부실 대응 도마에

### 검서 문서유출 소극대처 정황, 7인 모임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보고서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도마에 오르 고 있다.

보고서 유출 경위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서유출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소극적 대처 정황을 포착하고 청와대가 제시한 '7인 모임'에 대해선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문서유출의 핵심 용의자인 최 모 경위가 '민정수석실의 회유' 정황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각종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우선 청와대 내부문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미온적인 대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회장으로부터 100여 쪽에 달하는 유출문건을 전달받고 유출된 문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영한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심각한 일이 있다"며 수습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

했지만,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전화해 "무고가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1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박 회장이 세계일보 기자로부터 100여장 분량의 청와대 내부 문건을 건네받아 민정수석실에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을 받는 사람이 당시 홍경식 민정수석인지, 아니면 우병우 민정비서관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유출 문건을 건네받고도 유출문건을 회수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문건 중 박 회장 부부에 대한 개인동향 보고서가 상당수 들어있어 '찌라시 풍문' 정도로 알고, 대처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설득력 있게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상부'로부터의 견책이 두려웠거나, 자칫 청와대 내부 갈등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청와대 주변에서 나온다.

민정수석실은 이어 조 전 비서관이 '7인 모임'을 구성해 문건의 '정윤희 문건'의 작성 및 유출을 주도했다고 언론에 흘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1일 지난 1 일 박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이후 특별감찰에 들어갔고, 이후 조 전 비서관이 해당 문건의 작성과 유출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



대 측은 공식적으로 '7인 모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검찰 쪽에서 확인하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7인 모임'에 대해 모두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윤희 회 보고서' 파문 이후 뒤늦게 경위파악에 나섰다가 줄속으로 실체가 없는 '사조직'을 만든 셈이 됐다.

아울러 민정수석실은 자살한 최 모 경위와 함께 '정윤희 문건' 유출 혐의를 받아들인 한 모 경위에게 '회유를 권 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경위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던 최 경위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

각된 다음날인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최 경위는 유서에서 "민정비서관실에서 너(한 경위)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회유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5일 JTBC는 두 사람이 체포되기 전날인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이 한 경위를 직접 만나 '협의를 인정하면 기소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민정수석실 회유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한 경위 측 변호인이 즉각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JTBC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보도내용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JTBC는 다음날 후속 보도를 통해 "한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을 만났다는 내용이 담긴 육성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며 "한 경위가 말한 만남의 정황이 매우 구체적"이라고 맞대응했다.

청와대 보고서 문건 유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는 듯 하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민정수석실에 쏠리는 이같은 의문이 풀리지 않는 이상 이번 파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birakoca@news1.kr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비선파문 잘못된 것은 대처하고 가야"

### 야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거론에 "의정농단" 맹비판 "밤 새워서라도 경제활성화법 심의해 29일 본회의 처리해야"

(서울=뉴스1) 김영신, 유기림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비선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해 "올해 안에 다 끝내고 다 털어야 한다. 잘못된 것은 대처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야 한다. 검찰의 수사가 빨리 종결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표가 비선논

란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열흘 만이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지도부와의 청와대 오찬을 한 이튿날인 지난 8일 "검찰 수사가 성역없이 빨리 진행돼 국민 오해를 풀어야 한다.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했었다.

김 대표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의사일정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직무유기자의 의정농단"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야당의 국회 보이콧 논의는 민생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정말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eriwhat@news1.k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청 문건' 수사, 풀리지 않은 의문? 국정개입 의혹은 '미궁'

### 검, 수사 중 제기된 추가 쟁점도 최종점검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정윤희 국정개입의혹 문건'이 허위로 잠정 결론난 데 이어 청와대 문건 유출경로도 대부분 규명된 것으로 주장되면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 수사 중 제기된 추가 의혹과 쟁점들에 대해서도 최종 점검하고 있다. 다만 수사를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던 '국정개입 의혹'은 오히려 영원한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씨를 둘러싼 의혹은 일단 허위로 결론나는 분위기지만 검찰이 청와대가 제한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소극적인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만큼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정씨를 비롯한 청와대 비서관 등 1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앞으로 수사해야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유출 경위 수사에서도 15일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유출경위보고

서가 잘못된 내용으로 청와대에 제출된 정확한 경위를 밝히는 일이 남아 있다.

유출경위보고서에는 박관천 경정이 아닌 또 다른 청와대 파견 경찰관을 통해 대검찰청 수사관을 거쳐 문건이 유출됐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는 못한 상태다.

검찰은 '정윤희 문건' 진위가 가려진 만큼 세계일보가 청와대 '실세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고소인 8명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 중이다.

명예훼손죄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일단 검찰은 지난 고소인 조사에서도 세계일보에 대한 처벌 의사를 다시 확인해 공소제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다져냈다.

다만 세계일보가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보도했는지, 이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수사상 남은 쟁점이다.

결과적으로 세계일보가 허위를 보도했다더라도 이 같은 사정이 참작되면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

hong87@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 '청문건 유출' 한모 경위 측 "적정시점에 입장 표명할 수도"

### 한 경위 변호인 "검찰, 영장심사에서 혐의 수정 시도해 거부"

(서울=뉴스1) 홍우람, 성도현 기자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를 받던 중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회유설에 연루된 한모(44) 경위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식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내비쳤다.

한 경위 측 황현대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지료가 어느 정도 되고 적정 시점이 되면 (한 경위 본인의)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은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다.

또 다른 한 경위 변호인인 최진석 변호사는 "검찰수사가 마무리될 때쯤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지 상의를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TBC는 지난 15일 '한 경위가 체포되기 전날인 8일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만나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선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뒤부터 이날까지 한 경

위 변호인 측은 '여러 차례 본인에게 확인했지만 JTBC 기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전날 JTBC가 한 경위의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유설'의 진위는 미궁에 빠진 상태다.

황 변호사는 "전날(16일) 한 경위가 인터뷰한 사실도 없고 민정수석실의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함께 수사를 받다 자살한 최모 경위가 유서에 남긴 주장과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이야기다.

황 변호사는 이어 "(JTBC의) 녹취파일 존재 여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 기자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들어와 서야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죄사실을 갑자기 바꾸려 시도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한 경위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황 변호사는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본실 소속인 한 경위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박관천(48) 경정이 지난 2월 정보1본실장실에 임시로 옮겨놓은 문건들을 몰래 복사·열람하고 이를 최모 경위(사망)에게도 넘겨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황 변호사에 따르면 한 경위는 문건을 복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 경위에게 문건을 넘겨준 혐의는 부인했다고 한다.

한 경위 측이 영장심사에서 이같이 진술하자 검찰은 '최 경위에게 문건을 교부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사실을 '최 경위 등에게'로 수정하기로 영장전담판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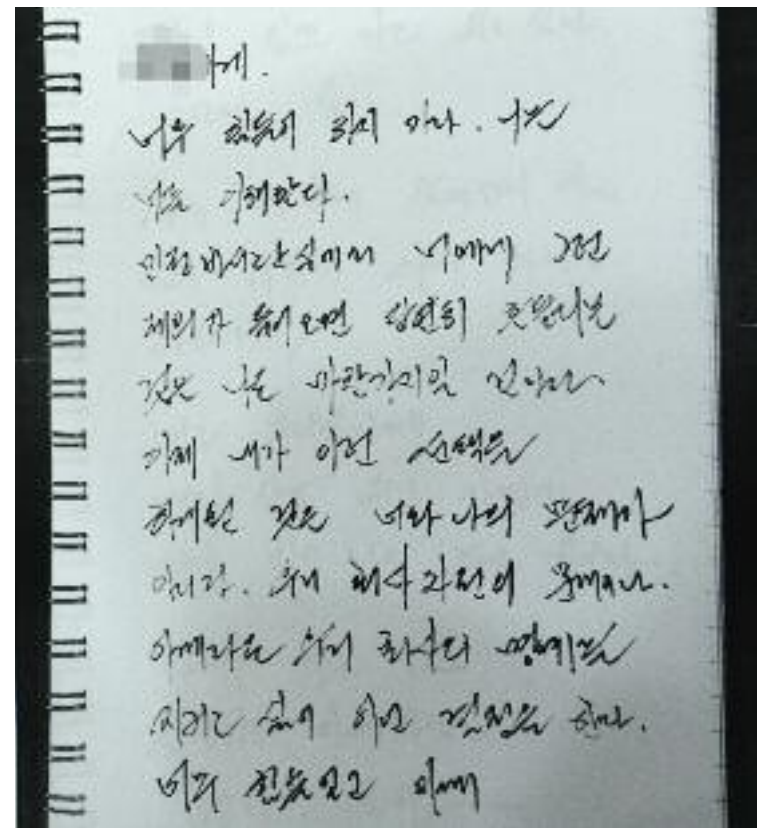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당시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문건 교부대상을 최 경위뿐 아니라 불특정다수로 확대하는 식으로 혐의를 뒤바꾸려 했다는 게 한 경위 측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한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객관적 물증에 기초해 자백을 받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것과 온도차가 있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JTBC 보도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수정한 일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건 유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향



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일동성당에서故 최모 경위의 유족들이 유서를 공개했다

후 한 경위의 사법처리 과정을 놓고도 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황 변호사는 "한 경위가 복사한 문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재판에서 문건들이 서증으로 모두 제출될 테니 그때 가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경위는 당초 입원해 있던 일반병원에서 정신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한 경위가 기억 착란 증세가 있어 불안한 상태"라며 "우울증 증세가 있어 약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hong87@news1.kr

## 박범계 공개한 '청문건 유출경위서' 보니...

### 청문건 유출 경로 기존 알려진 것과 달라 'MB정부 청 행정관 2명' 지목 유출경위서 작성자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추정

(서울=뉴스1) 김현, 서미선 기자 =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BH(청와대) 문서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 보고서(이하 유출 경위서)를 공개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유출 경위서에 따르면, 세계일보는 3월말과 5월 초 사이에 평소 친분이 깊은 경찰청 정보본실 경찰관(경감급 추정)으로부터 제보 제의를 받고 만나 청와대 문건을 두 차례에 걸쳐 입수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3월말께 청와대 행정관 비위동향 문건을 최초 입수했다. 당시 제보자는 '대서특필'을 부탁하면서 이 문건을 넘겨줬다. 이

에 따라 지난 4월2일 세계일보는 '청와대 행정관 5명의 비위가 적발됐으나 처벌받지 않고 원대복귀했다'는 문건의 내용을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또 지난 5월8일 박지만 EG회장과 부인 서향희 변호사 등의 동향이 적힌 128쪽 분량의 이른바 '박지만 문건'을 같은 제보자를 통해 2차로 입수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유출경위서는 세계일보가 2차로 '박지만 문건'을 입수한 뒤에 작성된 것을 감안하면 '5월말과 6월초 사이'(박 의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유출경위서엔 세계일보측으로부터 받은 '박지만 문건'과 함께 경찰정보원과 세계일보 기자의 녹취록이 첨부됐다.

유출경위서엔 문건유출 경로와 관련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마지막 시기 BH 민정에서 근무하다 작년(2013년)초 정권이 바뀌면서 대검찰청 범죄정보과로 복귀했고, 지금도 대검 범정에 근무중인 친한 사람이 '언론보도'를 전제로 준 것이다. 보도만 잘 되면 계속 줄 것", "대검 범정에 있는 사람은 MB

정부말 민정에 같이 근무했고 현재도 민정에 근무중인 경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기술돼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청와대 문건유출은) 지난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두 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간 이른바 '정윤희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경로가 사망한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 등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작성해 반출한 문건을 몰래 복사한 뒤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문건 유출 정황으로 볼 때, 세계일보가 3차로 입수한 '정윤희 문건'도 동일한 경로를 통해 유출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유출경위서의 작성자에 대해선 특정하지 않았지만,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언론보도와 검찰조사 등에 따르면, 지난 5월초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 측근 인사 동향보고서 등이

세계일보에 유출됐다는 사실을 박 경정에게서 보고받고, 유출 문건이 보도될시 파장을 우려해 박 회장과 세계일보 기자의 만남을 주선했다.

하지만 문건 사본을 넘겨 받은 박 회장이 문건 유출과 관련해 움직이지 않자, 조 전 비서관은 지난 6월1일 청와대 오모 전 행정관을 통해 128쪽의 문건 사본과 자신이 정리한 유출 경위서(5쪽), 세계일보 조모 기자와 정보본실 모 경찰관의 대화 녹취록(5~6쪽) 등이 포함된 '청와대 문건 유출경위 보고서'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유출경위서엔 "앞으로 유출될 문건에 '박지만 문건'보다 더 민감한 게 있다", "BH 이XX들 개판이더라" 등의 내용이 기술돼 있고, "세계일보로 3, 4차 추가 자료제공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니 신속한 조사로 유출자를 처리하고 아직 제공되지 않은 문건을 회수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의 기폭제가 된 '정윤희 국정개입 의혹 문건'은 유출경위서가 예견한대로

3, 4차 추가 보고서 가운데 하나로 추정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유출경위서 중 '대책' 부분에 "무작위로 복사 후 외부로 반출, 언론에 보도를 전제로 제공한 행위는 개인이 했다고 볼 수 없고, 소위 '튼튼한 세력'이 배경이 돼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돼 있다.

박 의원은 "유출경위서 작성자들은 대통령 보고를 위해 오 전 행정관을 통해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에게 해당 문서 등을 전달했지만, 정 비서관은 이를 묵살했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즉각 유출경위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경위서가 지적한 대로 3, 4차 유출을 수습하고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정윤희 문건"은 언론에 유출되거나 보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측은 오 전 행정관이 전달한 문건을 '묵살'한 이유와 관련해 오 전 행정관이 문건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gayunlove@news1.kr

# “매주 2만여명의 독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발송 서비스

-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보기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보스톤 코리아가 매주 신문 발행과 함께 이메일로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을 전세계 어디에서나 웹사이트에서 또는 지면보기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소식, 깔끔한 디자인  
새로운 소식을 깔끔한 디자인으로 전해드립니다.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저희 보스톤코리아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이안 2014도 볼 수 있어  
보스톤 및 미주 생활 가이드로 교육에서 의료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eBook 또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보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세요!

픽업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스톤코리아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이메일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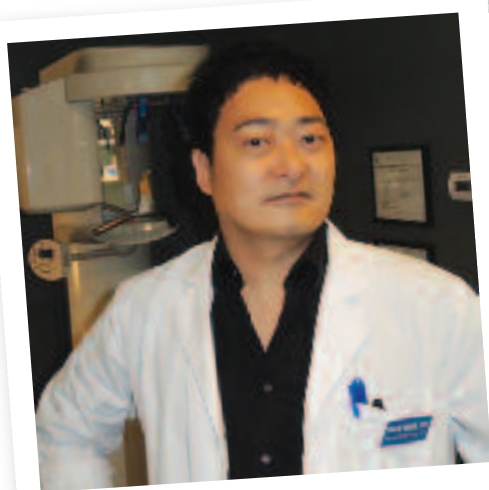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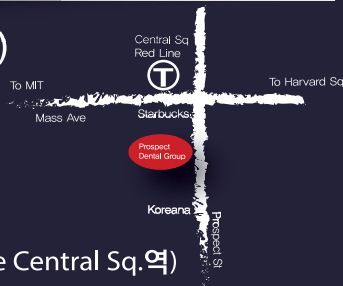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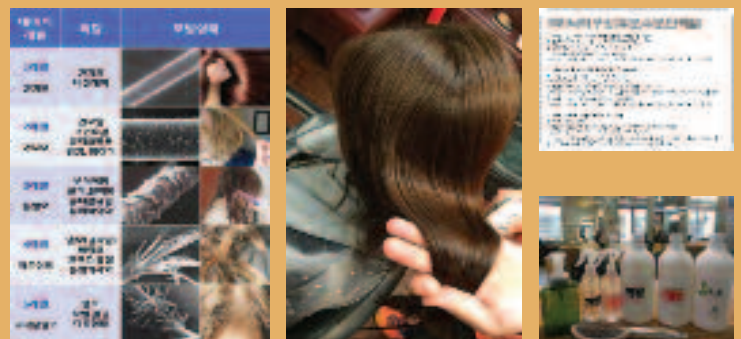
Salon Sabrina

##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타트업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사과 쪽지 공개, "진정성 없다"

(서울=뉴스1) 온라인팀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팡공 리턴' 사건으로 당시 비행기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박창진 사무장이 이전에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시 밝혔다.

박창진 사무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8일 국토교통부에서 첫 조사를 받고 난 직후 대한항공 임원이 자신을 불렀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에서 대한항공에게 전화를 걸어, 승무원들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가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시간대별 동선 등의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다시 써달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승무원들이 서로 입을 맞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묵인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확인서 과정이 저로 하여금 국토부를 불신하게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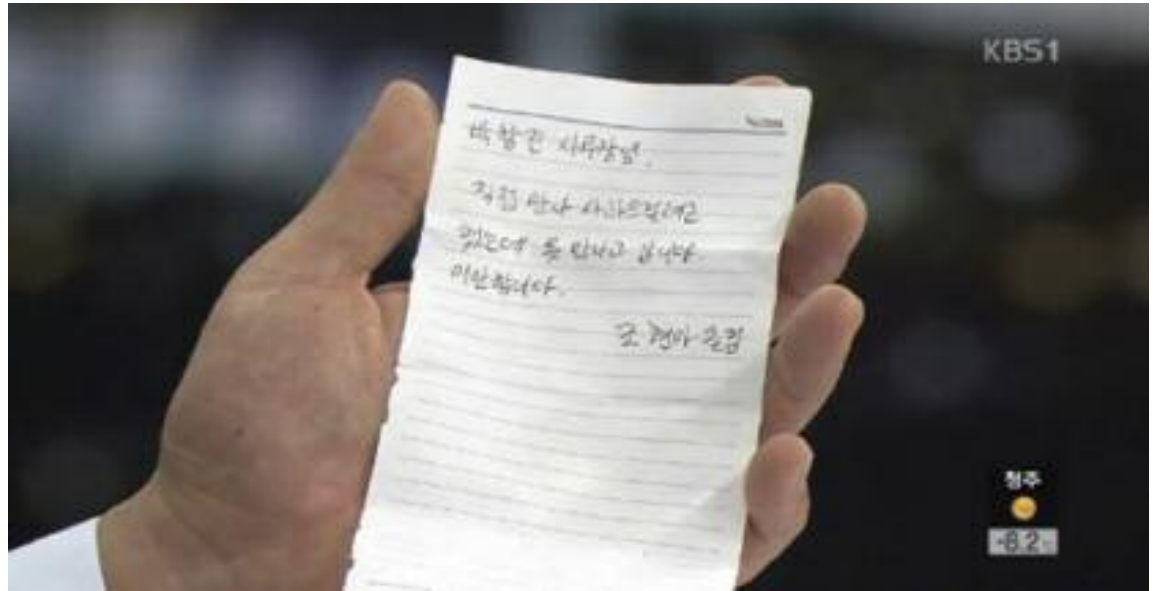
었다" 고 밝혔다.

이렇게 확인서를 다시 쓰는 일은 10차례 이상 반복됐다고 한다. 대한항공 측은 이렇게 다시 작성된 확인서를 박 사무장 본인의 이메일로 국토부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또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밝혔다. 뉴욕 공항에 내린 후 작성한 최초 보고 이메일을 대한항공에서 삭제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또 그는 이어 조현아가 직접 자택에 남기고 갔다는 사과 쪽지도 공개했다. 대충 수첩을 찢어 날려 적은 이 쪽지의 내용에서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더 참담했다. 그래도 저는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를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변하지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직접 자택에 남기고 갔다는 사과 쪽지를 공개했다

않았다" 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

게 또 저의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저 스

스로 대한항공을 관두는 일은 하지 않

겠다고 결심했다" 라고 밝혔다.

khe45678@news1.kr

## 조현아 전 부사장, "죄송합니다" 말하며 '눈물'도

'출두 리허설' 논란 의식

조용한 출석

심경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혐의 관련 질문에 '침묵'

(서울=뉴스1) 구교운, 정재민, 윤수희 기자 = '팡공회항' 논란의 주인공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7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서부지검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조 전부사장은 이날 법무법인 광장의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검은색 체어맨 차를 타고 와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부사장은 영하 6도의 추운 날씨 속에 검은색 긴 점퍼에 검은색 바지, 은색 리본 장식이 달린 검은색 구두를 신고 등장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출석 당시 입었던 복장과 유사했으나 이날은 핸드백 대신 누빔천으로 된 손가방을 들고 흰색 목도리를 착용했다.

앞선 국토부에서의 '출두 리허설' 논란을 의식한 듯 수행했던 서 변호사는 뒤로 물러나 조 전부사장을 천천히 따라갔다. 대한항공 직원 4명도 서부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취재진을 막는 등 행동은 하지 않았다.

검은색 체어맨에서 내린 조 전부사장은 두 손에 손가방을 쥐고 고개를 푹 숙인채 천천히 정문을 향해 걸었다.

조 전부사장은 청사 청문을 둘러싼 취재진 앞에 멈춰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조 전부사장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는데 심경을 말해달라', '국민에게 한마디하라', '사과가 왜 이리 늦었냐'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승무원 폭행 인정하냐', '승무원 어깨를 밀쳤냐', '회항 지시했냐', '관련 내용 보고 받았냐' '은폐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혐의 관련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답변하지 않았다.

조 전부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변호사를 따라 이동하면서 눈물이 흘러 코 끝에 맺혔다. 조 전부사장은 오후 1시 55분쯤 서 변호사와 함께 청사 8층의 검사실로 향했다.

kukoo@news1.kr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검 청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 2014년 대한민국 유행 화법 BEST 3 원세훈부터 조현아까지

(서울=뉴스1) 김진 인턴 기자 = 지난 2005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희대의 유행어가 탄생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상혁은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5년간 사라졌다.

시간이 흘러 2014년, 슬프게도 김상혁의 발언은 '대한민국 최고 유행 화법'이 되어 버렸다. 누리꾼들이 뽑은 '대한민국 유행 화법 BEST 3'를 소개한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개입 무죄 판결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해 국내 정치에 불법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선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을 동원해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직접 개입한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면서도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심리전단의 트위터 활동이) 대선 직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선거운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선거개입에는 무죄로 판결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선고 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명돼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소사를 밝혔고,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12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아, 원세훈의 무죄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라 비판한 현직 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추행 사건 "(A씨가) 참 예뻐서 몸조심하라고 했다.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톡 찔렀을 뿐이다"**

박희태 전 의장은 지난 9월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 중 담당 캐디 A씨(23)의 신체 일부를 접촉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은 A씨의 가슴 일부를 만



2005년 문제가 된 김상혁의 발언

졌고, 이에 A씨는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박희태 전 의장은 "참 예뻐서 몸조심하라고 했다.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톡 찔렀을 뿐 성추행은 아니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팡공 회항' "사무장한테 내리라고 지시했지 비행기를 돌려라고는 안 했다"**

12월5일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은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KE086 승무원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하며 박창진 사무장 하기(下機)를 지시했다. 문제는 봉지째 서빙된 '팡공'이었다. '팡공'을 그릇에 담지 않고 봉지째 내어준 것이 그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결국 여객기는 사무장을 내리게 하기 위해 회항했고, 이로 인해 이륙이 20분이나 지연돼 승객들은 불편을 겪었다. 사건은 8일 첫 보도 이후 일파만파 퍼져 조현아 퇴진, 참여연대의 고발, 국토부 조사, 검찰 조사로 이어졌다. 동시에 각종 패러디물이 쏟아졌고, 문제의 '팡공'인 마카다미아 너트 매출이 200% 오르는 '조현아 특수'를 맞았다. 16일에는 국토부 조사 중 "사무장한테 내리라고 지시했지 비행기를 돌려라고는 안 했다"고 말해 다시 한번 대한항공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 발언을 본 누리꾼들은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주세요(baek\*\*\*\*)" "사람을 찔렀지만 살인한 것은 아냐(ratq\*\*\*\*)" "말이나 방귀냐(godch\*\*\*\*)" "남침을 안 사귀어 봤지만 모태솔로는 아니다(gyo\*\*\*\*)" "재는 일진이지만 착하다(seo\*\*\*\*)" 등 각종 패러디 댓글을 남기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soho0901@news1.kr



설화수, 조화로운 피부 다스림



**The Essence of Timeless Beauty**  
설화수 진설 기초 2종 세트 \$220

SET INCLUDES Time Treasure Perfecting Water 125ml/ Perfecting Emulsion 125ml  
Deluxe Samples: Time Treasure Perfecting Water/ Emulsion/ Serum/ Eye Cream/ Cream



**Essential Line for Natural Health**  
설화수 자음 기초 2종 세트 \$115

SET INCLUDES Essential Balancing Water 125ml/ Emulsion 125ml  
Deluxe Samples: Balancing Water/ Emulsion/ First Care Serum/ Rejuvenating Eye Cream/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아이오페, 자연과 인간, 그리고 피부를 위한 생명 과학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스페셜 2종 세트 \$125

SET INCLUDES Super Vital Essential Softner 150ml/  
Super Vital Essential Emulsion 150ml/ Deluxe Samples:  
Super Vital Essential Serum/ Eye Cream/ Bio Essence  
Intensive Conditioning



아이오페 모이스트젠 에센셜 2종 세트 \$68

SET INCLUDES Moistgen Essential Softner 200ml/  
Moistgen Essential Emulsion 150ml/ Deluxe Samples:  
Moistgen Essential Softner/ Emulsion/ Moistgen  
Essential Cream



아이오페 남성 스페셜 2종 세트 \$77

SET INCLUDES Men Bio Essence Intensive  
Conditioning 145ml/ Age Treatment Emulsion  
100ml/ Deluxe Samples: Men Bio Essence/  
Emulsion

라네즈, 마르지 않는 자신감, 수분 전문가



라네즈 뉴 베이직 2종 세트 \$53

SET INCLUDES Power Essential Skin Refiner Moisture  
200ml/ Balancing Emulsion 150ml/ Deluxe Samples:  
Water Bank Essence/ Moisture Cream/ Water  
Sleeping Pack EX



라네즈 퍼펙트 리뉴 스페셜 2종 세트 \$68

SET INCLUDES Perfect Renew Skin 120ml/ Emulsion  
100ml/ Deluxe Samples: Perfect Renew Essence/  
Firming Eye Cream/ Perfect Renew Cream



라네즈 남성 액티브 워터 2종 세트 \$60

SET INCLUDES Homme Active Water Skin  
Refiner 150ml/ Active Water Emulsion 125ml  
Deluxe Samples: Homme Active Cleanser/ Water  
Skin Refiner/ Active Water Emulsion

**GIFT WITH PURCHASE**

\$90 이상 구매 시  
설화수 진설 기초 2종 세트 또는  
설화수 자음 기초 2종 세트 중 하나를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190 이상 구매 시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스페셜 2종 세트 또는  
아이오페 모이스트젠 에센셜 2종 세트 중 하나를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FREE GIFT

##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렬



주일예배: 주일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찬양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1:30  
중고등부: 주일오전 11:30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

The Nazarene Church  
**세빛교회**  
NewLightKC.org  
담당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20



##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당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http://www.newkcc.org)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Catholic Parish of Greater Boston

<관공성사>  
12/5(금), 6(토) 대림피정 중  
12/14(주일) 교중미사 / 청년미사 전, 중, 후  
12/21(주일) 교중미사 / 청년미사 전, 중, 후

<성탄 전야>  
12/24일(수) 8pm

<성탄절>  
12/25(목) 4pm  
(성탄절 행사-12:15pm)

<송년미사>  
12/31(수) 9pm

<천주의 모친 성모마리아 대축일>  
1/1(목) 11:30am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www.kccboston.org](http://www.kccboston.org)

##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http://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http://www.bostonrenewal.org)

Welcome, **tbo**

## 티보 VIP 할인!

11월, 12월  
VIP  
할인 이벤트

**\$29.99**  
(2년 약정시)

**기회를 잡으세요!**  
이벤트 기간  
2014년 11월~12월

이벤트 내용  
이벤트 기간중에 가입 고객은  
**1년간 VIP \$29.99**  
1년 이후 \$34.99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세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

CJ korea express

항공이사. 택배

로컬이사  
타주이사  
차량운반

해운이사. 귀국

사랑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이사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CJ K E BOSTON MOVING**  
대한중운보스톤대리점

T 978-461-2424 / 888-237-9399 [keboston2424@gmail.com](mailto:keboston2424@gmail.com)  
<http://www.keboston.com> Add : 51 Knox Trail Unit # 3, Acton, MA 01720





**사시미:**

싱싱한 광어와 혼마구로 참치, 방어, 흰투나, 레드스내퍼, 생굴과 생우니, 한치회무침과 매운탕까지



**사시미A18인치 투고박스: \$150**

160피스+매운탕+마끼4개  
T10,S20,F40,H10,W20,R40,i20



**사시미C14인치 투고박스: \$80**

70피스+매운탕+마끼2개  
T10,S10,F10,H10,W10,R20



**사시미B16인치 투고박스: \$100**

110피스+매운탕+마끼3개  
T10,S10,F20,H20,W10,R20,i20



**사시미D12인치 투고박스: \$50**

50피스+매운탕+ 마끼1개  
T6,S6,F10,H6,W10,R12

T: TUNA, S: SALMON, F: FLUKE, W: WHITE TUNA, R: RED SNAPER

**스시와 롤:**

싱싱광어, 혼마구로 참치,스코티시 셀몬,하마찌,장어,새우,오징어 등등

A: 72피스, 초밥 \$98.95

B: 64피스, 스페셜롤 \$74.95

C: 64피스, 캘리포니아롤 \$34.95

D: 48피스, 캘리롤24피스,초밥24피스 \$48.95



**김밥:**

A: 김밥 200피스, 유부초밥20개 \$130

B: 김밥 100피스, 유부초밥10개 \$70



**사시미 폭코스**

횃집스타일 코스요리를 제공하오니 가족이나 지인 모임에 많은 애용바랍니다.  
싱싱광어한사라,아구간,열빙어튀김,나또무침,한치물회,흰투나,생굴,우니,초밥,  
스켈럽버터구이,생선찜,스페셜마끼,얼큰매운탕,모찌아이스크림  
일인당40불이며, 단 예약을 하셔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모임은  
오빠스시와 함께**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얼스톤에 위치한 저희 오빠스시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 패트리어츠, 뉴욕 제츠와 라이벌전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뉴욕 제츠는 같은 지구 내에 속한 라이벌 팀이다. 뉴욕과 보스턴 사이의 묘한 경쟁 심리 때문인지 풋볼에서도 제츠와 패트리어츠는 항상 경쟁 구도에 있다.

실력과 성적만을 놓고 본다면 패트리어츠와 제츠는 사실 라이벌 사이라고 불리기도 어렵다. 올해 패트리어츠는 11승 3패를 기록 중이며 남은 2경기에서 승리한다면 AFC에서 1번 시드를 받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된다. 반면에 제츠는 3승 11패를 기록 중인 NFL 최하위 팀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은 불가능하다.

단지 이번 시즌에만 패트리어츠가 반짝 좋은 성적을 낸 것이 아니다. 패트리어츠는 6시즌 연속 지구 1위, 최근 12시즌 중 11시즌에서 지구 1위를 차지하며 패트리어츠 왕조를 구축했다. 이에 반해 제츠는 4시즌 연속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저조한 성적을 기록 중이다.

제츠의 렉스 라이언 감독은 올해를 끝으로 제츠 감독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그렇다면 제츠 감독은 마지막으로 패트리어츠를 상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

라이언 감독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벨리치 감독의 영달이를 건어 차기 위해 여기에 왔다” 며 “그러나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나뿐만 아

니라 많은 감독들이 그렇게 하는데 실패했다” 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라이언 감독이 있는 동안 제츠는 패트리어츠를 상대로 정규 시즌에 3승 8패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에 마이애미 돌핀스는 3승 9패를, 버팔로 빌스는 1승 10패를 기록했다

패트리어츠가 속한 AFC 동부지구에서 최근 6년 동안 패트리어츠를 상대로 5할 이상의 승리를 거둔 팀은 없다. 라이언 감독의 제츠가 경기력이 떨어져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패트리어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승리를 해온 것이다.

2009년에 제츠 감독으로 부임하면서부터 라이언 감독은 패트리어츠를 왕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를 원했다. 그리고 라이언 감독은 이런 자신의 바

램을 숨기지 않고 거침없이 밝혀왔다.

2010년 디비저널 플레이오프에서 제츠가 패트리어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라이언 감독이 원하는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도 패트리어츠는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제츠는 그 이후로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패트리어츠가 우세한 상황 속에서도, 맞대결을 펼치면 의외

로 패트리어츠와 제츠의 경기는 박빙의 경기가 펼쳐졌다. 제츠와 패트리어츠의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승부가 3점 차이 이하로 결정되었다. 올해 정규 시즌 7주차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27대 25로 패트리어츠가 힘겨운 승리를 거두었다.

제츠와의 경기를 앞두고 빌 벨리치 패트리어츠 감독은 “제츠는 강하고 어려운 상대다. 특히 러닝이 강하고 일요일 경기에서도 러닝 공격을 펼칠 것

이다” 라며 “제츠 팀의 많은 부분을 존경한다. 그들은 좋은 풋볼 팀이다. 이번 경기도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라이언 감독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패트리어츠와 경기를 앞두고 더욱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패트리어츠를, 혹은 벨리치 감독을 꺾어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라이언 감독의 말이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까.

jsi@bostonkorea.com



지구 1위를 달리고 있는 패트리어츠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츠의 경기가 이번 주에 펼쳐진다

##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68

### 스시와 골프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가르침과 배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가 있다면 그것은 깨달음이다. 학교에서 깨달음이 있을 수 있고, 무술의 세계에서 깨달음이 있고, 영성의 세계에서도 깨달음이 있다. 자주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드물게 나와 골프의 세계에 있어서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가끔 본다. 그런 만남은 가슴을 설레게 한다. 몸과 마음에 전율이 흐른다.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알려주는 이가 있고 받아 익히는 이가 있어야 한다. 선생과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어떤 깨달음은 혼자서 깨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가까이서 그런 경우는 보질 못해서 신빙성은 없어 보인다. 하야간 잘 가르친다는 것과 잘 배운다는 것은 배우는 이에게 깨달음의 경지에

가깝도록 잘 알려주고 인도해 준다는 것을 말한다. 일상의 생활에서나 신앙의 생활에서나 직장의 생활에서나 하나같이 적용되는 원리가 아닌가 한다.

삼십년 스시 하나로 살아온 사람을 만났다. 한 번의 만남이 아니고 지난 칠개월 사이에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 한 번에 5일씩 만났으니 총 10일 동안의 만남이었다. 이름은 테드이고 현재 펜실베이니아 주에 살고 있다. 태생은 대만이고 소실적 일본으로 유학을 하여 스시 맨이 되었고 그후 미국 대만 중국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직장을 옮겨 다니며 스시일을 하고 있다. 지금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10여개의 스시부서를 관장하면서 가르치고 또 새로운 스토어가 개점을 하게 되면 파견되어서 일주일씩 스시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스시 트레이너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총 85개의 스시 부서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4명의 스시 트레이너 중에 한 명이니까 객관적으로도 실력이 인정된 스시 선생이다. 사실 다른 3명의 스시 트레이너와도 똑같은 시간의 양만큼 가르침을 받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나를 나에게 습득되는 정도의 차이는 테드 선생과는 비교가 되질 않았다. 7개월 전의 만남은 스시 부서의 일반 부원으로서의 만남이었고, 이번 두 번째의 만남은

스시 부서의 팀장으로서의 만남이었다. 따라서 하나를 배우더라도 배움의 깊이가 달랐던 것도 사실이다. 많은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전체 팀을 책임지는 입장에서의 배움은 아무래도 온갖 정성을 더 쏟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테드 선생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나에게 맞게 전해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속에는 마음이 같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진정 가르쳐 주려는 마음과 진정 배우려는 마음이 통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가르침의 마지막 전날 우연찮게 테드는 골프에는 관심은 있지만 한번도 골프를 쳐본 적이 없는 골프의 숫처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은 늦었지만 고마움의 표시로 골프 필드레슨을 해주고 싶었다. 시간이 늦어져서 한 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이었지만 테드선생이나 필자나 깊이 기억에 남는 저녁시간의 골프 라운딩이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력과 마음이 함께 동하도록 어우러지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행운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만남의 시간이었다.



#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비대위원직 사퇴, 당권 레이스 돌입

(서울=뉴스1) 김현, 서미선, 박소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문재인·박지원·정세균 비상대책위원 등 이른바 '빅3'가 17일 비대위원직을 동반 사퇴하면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다.

내년 2월 전대에서 뽑히는 새 지도부는 20대 총선의 공천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당내 제 세력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도부 교체를 통해 당내 주도 세력의 변화는 물론 야권내 지형 재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박지원·정세균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직 통보를 받고 동반 사퇴했다. 이들의 사퇴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직 사퇴로 지난 9월19일 문희상 비대위 체제가 꾸려진 뒤 약 3개월여만이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비대위 첫 회의에서 정당혁신과 정치혁신이 제가 정치하는 목적이라고 했다. 그 마음으로 비대위에 참여했고 비대위를 그만두는 마음도 똑같다"며 "이번 전대는 계파와 개인의 이익을 초월해 변화와 혁신의지를 모으는 단합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당을 수리하는 게 아니

라 신제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수많은 기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오늘 불과 20~30분 전 문 위원장에게 통보를 받았다. 저는 오늘부로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을 내려놓는다"며 "비대위 본연의 임무는 당무를 관리하며 전대를 잘 치르는 것이다. 반드시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국민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지난 석달 동안 계절이 바뀌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위기에 처한 당을 살리려 문 위원장과 함께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일했다"며 "비대위원직 사퇴는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당에서 입은 은혜를 갚고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알프스도데의 '마지막 수업'을 언급, "만감이 교차한다"며 "특히 오늘 사임하는 비대위원의 헌신적 노력에 당을 대표해 감사하다. 내일 새로 개편되는 비대위가 변함없이 공정한 전대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그간 경륜과 능력으로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게 다시 한번 130명 의원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18일 후임 비대위원 인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선을 완료한 뒤 19일 첫 비대위 및 당무위 회의를 열어 전대 물줄기를 확정하는 계획이다. 후임 비대위원으로는 이석현 국회부의장, 김성곤 전대준비위원장, 원혜영 혁신실천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른바 '빅3'의 비대위원직 사퇴로 차기 당권을 향한 레이스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7~28일 후보자 등록, 내년 1월7일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2월8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비대위원직을 사퇴한 이들 세 명은

모두 당 대표 경선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당내에서 '빅3 불출마론'이 제기되고 있어 이들 3인 중 일부가 불출마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들의 당 대표 경선 출마에 따라 당내 비주류 진영의 후보군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 진영내에서 '다크호스'로 거론돼 온 김부겸 전 의원이 이날 '불출마 입장표명 유보'를 하면서 '빅3 불출마'를 압박했다. 빅3가 당 대표 경선에 동반 도전할 경우, 김 전 의원은 불출마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 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이 '제4후보'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비주류 진영내에선 '당 혁신'을 기치로 김부겸-박영선-이인영(486그룹)-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일부 인사간 연대를 통해 빅3에 맞설 후보를 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문재인 비대위원에 맞서 타(他) 후보들간 합동연횡 가능성도 관측된다.

gayunlove@news1.kr

## 여 하태경·김진태 박지원 방북 연일 맹비난... "굴욕적"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 추모화환을 북한에 전달하고 돌아온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난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박 의원을 "김정은 정권의 내시 비서실장"이라고 해 야당의 반발을 부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7일에도 "북한 입장을 대변인처럼 미화하고 있는 버릇이 반복되고 있다"고 박 의원을 겨냥했다. 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흥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박 의원의 조화 전달에 대해 "굴욕적"이라며 "전 세계가 북한 인권 개선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박 의원이 북한에 인권을 개선하라는 쓴 소리 한 마디라도 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또한 하 의원은 "박 의원은 북한에 쓴 소리 한 마디 못 하고 북한에 항상 달콤한 소리만 하는 분

"이라며 "북한 입장을 정확히 비판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교묘히 북한 입장을 미화하고 있다. 이번 방북 보고도 이런 문제점들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화 배달 심부름꾼"이라고 박 의원을 비판했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역시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김정은 살인 정권에 머리를 조아려서는 답이 안 나온다"며 "남북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박 의원의 방북을 깎아내렸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의 방북을 승인한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에 제 정신을 가진 분이 별로 없다"며 "방북 승인을 안했다가는 야당에서 엄청 반발하고 시끄러울테니 그냥 해주자고 생각한 것 같은데 영혼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ydkim@news1.kr



박지원 의원이 16일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에 대한 이회하 여사 명의의 추모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자원외교 국조, 국회 일, 나한테 왜 묻나"

(서울=뉴스1) 김유대, 손미혜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은 18일 여야가 최근 합의한 해외 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 "국회에서 하는 일이지, 나에게 물으면 되나"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친이(親이명박)계 측근 인사들과 송년회를 겸한 모임을 갖기 위해 서울 신사동의 한 식당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지난 10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합의한 이후 이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출석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구름 같은 이야기를 한다. 추정해서 이야기하면 안되지"라며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 인사들과 만찬 자리를 시작하면서도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정치현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참석자인 권택기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전했다.

권 전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모임에서 최근 해외 특강과 내년초 출간 예정인 회고록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눴다. 이 전 대통령은 내년 1월말 회고록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또한 참석자들에게 "7년 전 다 같이 힘을 모은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 자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측근들과 송년 만찬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 건강과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모임이 됐으면 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친이 측근 인사들은 대통령 당선일과 이 전 대통령의 생일이자 결혼기념일까지 겹치는 12월 19일을 전후로 매년 송년회를 겸한 모임을 가져왔다.

이날 모임에는 이재오·이근현·권성동·김용태·조해진 의원과 이윤성·최병국 전 의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30명에 달하는 친이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이날 모임의 저녁 메뉴는 미국산 쇠고기라고 권 전 의원이 전했다.

ydkim@news1.kr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가지 서비스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4,800  
Sharon, MA  
3 Beds, 2.5 Baths, 1872sf.  
잘 관리된 좋은 구조의 집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215 sf.  
넓은 공간, 아름다운 실내 구조  
살기 좋고 우수한 학군  
이현주 401-935-3397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hood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렌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부동산 협회 (NAR) / 2014년 10월 / 100대 부동산 에이전트 /  
2014년 10월 / 100대 부동산 에이전트 / 2014년 10월 / 100대 부동산 에이전트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즐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b>Restaurant</b>  <b>Exclusive</b> \$799,000 <b>Cambridge, MA</b>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b>SAT Academy</b>  <b>Exclusive</b> \$50,000 <b>Brookline, MA</b> SAT Tutoring Academy Near many good schools Close to Route 9 and I-95 Julie H. Lee 401-935-3397	<b>Business Consulting</b>  <b>Exclusive</b> <b>레스토랑 셋업 컨설팅</b> SJ Park 617-304-7001	<b>Restaurant</b>  <b>Exclusive</b> \$789,900 <b>Brookline, MA</b>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Beauty Service</b>  <b>Exclusive</b> \$100,000 <b>Newton, MA</b> 비즈니스에 좋은 위치 Kwang O. Kim 617-792-8615	<b>Full Plant Cleaner</b>  <b>Exclusive</b> \$260,000 <b>Chelmsford, MA</b> Chelmsford downtown 아파트, 콘도 단지 주변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b>Exclusive</b> \$179,000 <b>Nashua, NH</b> One of the reputable Asian cuisines in Nashua, NH Jason Jeon 617-642-5670	<b>Deli</b>  <b>Exclusive</b> \$250,000 <b>Boston, MA</b>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b>Cafe</b>  <b>Exclusive</b> \$250,000 <b>Boston, MA</b> Cafe w/ 프론트 요거트, 버블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b>Exclusive</b> \$199,900 <b>Newton, MA</b>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b>Dry Cleaner</b>  <b>Exclusive</b> \$29,990 <b>Norwood, MA</b> 40 lbs washing machine located in strip mall Anna Jung 617-780-1675	<b>Jewelry Business</b>  <b>Exclusive</b> \$74,990 <b>Natick, MA</b>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b>Investment</b> <b>E-2 &amp; EB-5 투자</b> 문의 781-259-4989	<b>Full Plant Cleaner</b>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b>Convenience Store</b>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b>병원 건물 렌트</b>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b>Full Plant Cleaner</b>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b>커머셜</b> <b>커머셜 건물 투자</b> S.J Park 617-304-7001	<b>비즈니스 빈자리</b>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b>비즈니스 빈자리</b> S.J Park 617-304-7001	<b>APT Rental</b>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0, No.50 December 19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67

〈특별편〉

**보스톤코리아 편집진의 추천 업소**

- ▶ 개스라이트
- ▶ 페퍼 스카이스 타이 센세이션
- ▶ L.A. 버딕

선 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올해의 마지막 호를 맞아 특별하게 보스톤코리아 편집진의 추천 업소를 준비했다. 브런치 가게부터 타이 레스토랑, 수제 초콜릿 가게까지 편집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자주 가는 세 곳을 다양하게 소개해 본다.

▶ **개스라이트(Gas Light)**

560 Harrison Ave., Boston, MA 02118

617-422-0224

gaslight560.com

사우스 엔드에 위치한 개스라이트는 브런치로 유명한 프렌치 스타일 레스토랑이다.

개스라이트의 엔틱한 인테리어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내 "데이트하기 좋은 식당"으로 추천되었다.

가격대는 비교적 높지만 프리 픽스(Prix Fixe) 브런치로 주문하면 \$9.95에 커피 또는 신선한 생과일 주스가 포함된 산뜻한 브런치를 즐길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무료 주차증도 받을 수 있다. 브런치 영업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디너는 월요일부터

수요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목요일부터 토요일은 자정까지다.

▶ **페퍼 스카이스 타이 센세이션(Pepper Sky's Thai Sensation)**

20 Pearl St., Cambridge, MA 02139

pepperskys.com

617-492-2541

페퍼 스카이스 타이 센세이션은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오히려 맛이 무난하다는 이유로 추천되었다. 다른 타이 음식점과는 다르게 이곳의 음식은 향이나 맛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적절히 새콤달콤하면서 매콤하다. 이 때문에 타이 음식이 먹고 싶을 때면 캠브리지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 편집진 일부의 말이다.

역시 무난한 메뉴가 추천되었다. 페퍼 스카이 볶음밥(\$10.95)은 닭고기와 새우 중 고를 수 있으며 매콤하게 주문할 수도 있다. 팟타이(\$10.95)도 매콤한 맛과 일반 팟타이가 있는데 추천인의 말로는 매콤한 볶음밥과 일반 팟타이를 시키면 적절히 조화롭게 먹을 수 있다고 한다.음식의 양도 푸짐한 이 곳은 디너 타임에 줄을 서 먹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영업시간은 주중 오전 11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오후 12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한다.

▶ **L.A. 버딕(Burdick)**

220 Clarendon St., Boston, MA

617-303-0113

burdickchocolate.com

L.A. 버딕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는 수제 초콜릿 카페다. 작은 펭귄, 생쥐 모양의 초콜릿이 특히 인기가 많다. 먹기 야까울 정도로 양증맛고 작은 데다가 비싸기까지 하지만 선물용으로는 제격일 듯하다. 추수감사절 시즌에는 칠면조 모양의 초콜릿이 출시되었는데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작은 눈사람 모양의 초콜릿이 판매되고 있다.

패스츄리와 진한 핫초콜릿도 일품인 L.A. 버딕은 백베이(Back Bay)와 캠브리지에 지점을 두고 있다.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 토요일은 저녁 9시,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다.

dyoo9146@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형락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긴급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세청	617-536-7469
남서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00-235-6426
백배지역	888-477-6721
보스턴공립학교	617-345-7958
보스턴수도	617-635-9000
보스턴시청	617-989-7000
보스턴총영사관	617-635-4500
사우스릭	617-641-2830
사회보장국	617-345-7958
성폭행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술/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텍스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주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617-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동맹(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학회	774-270-1948
베냐민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학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관대동창회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가톨릭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레시언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침례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교회	978-869-2596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턴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델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64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교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바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꽃	
미스티학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 금융/투자

인덱펀드(투영) (유영)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스파이낸스	617-799-6158

### 방송/에어컨/히팅

JK 플라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킴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민헤어	508-734-0446
타케이 헤어디자인	97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5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 변호사

김공식특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서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617-884-0002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광각(0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신부인과	
최의웅신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신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	617-566-1055
양미아힐리리카운셀링	508-728-0832
인사정신상담소	617-738-9622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연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티학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 금융/투자

인덱펀드(투영) (유영)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스파이낸스	617-799-6158

### 방송/에어컨/히팅

JK 플라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킴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민헤어	508-734-0446
타케이 헤어디자인	97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당구장

울스트링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케이시즈 동물병원	978-658-5282

###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	--------------

### 부동산

가나안부동산(손득한)	617-290-0623
김중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주부동산(뉴스타)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손옥림부동산	508-737-8636
신한정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경명)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74-2087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부동산	203-255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4989 부동산매매는 —————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1/2  
월슬리 7달 아기 돌봐주실 분을 찾습니다. 주5일(월-금), 급여협상가능  
T. 781-492-8786

12/12  
미용가위, 애견가위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가위 가는 기술 전수합니다.  
T. 917-513-7771

12/12  
세탁소 스퍼터 프레스 구함  
초보자도 환영, Natick  
T. 508-655-5004

12/19  
워터타운 새로 오픈한 네일가게  
자격증 소지자 구합니다.  
T. 857-266-4175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일식당 매매 15K - 18K**

한식 겸하면 최고 조건, 독점지역 저렴한렌트, 알차고 꾸준한 대상 두차례 영주권 내준 식당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TEL 603-557-3123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FIXALL**

바이러스 치료, 데이터 백업/복구 맥OS/윈도우/리눅스 설치/복구 각종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 홈 네트워크 설치  
TEL 617-710-4952

12/19  
**N [매 매] 세탁소매매**  
건물+세탁소(33만불)  
.9년간 같은 주인경영  
.경쟁자 없음  
.살기좋은 백인동네  
.미독립기념일 1주간 문닫고 휴가  
.은퇴관계로 매매  
.Chatsworth, GA(Dalton근방)  
T. 706-980-9510 Mr Kim

11/28  
**N [매 매]**  
필리 치즈스테이크 샌드위치 가게  
연매출 :\$340,000  
순이익 :\$160,000 이상  
매매가 :\$160,000  
루지애나 주 뉴올리언즈 지역  
C. 504-729-8688  
T. 985-646-1771

2/27  
**N [매 매]**  
한국마켓(미시시피)  
성업중인 마켓, 사정상 좋은가격에 급매합니다.  
사실분 연락 바랍니다.  
T. 512-775-6429

11/28  
**N [구인]**  
노스 다코타 인테리어 휘니시 기술자 구합니다.  
인테리어 휘니시,케비넷도어, 트림, 유경험자 환영.  
미네소타&노스다코다 지역 포함.  
T. 952-292-6090

10/17  
**N [구인]**  
한식당주방장과 부주방장 구합니다  
작은 동양 마켓안 한식당 주방장과 보조 각 1명씩 더 모집합니다  
현재 주방장 보조 서빙 2명 디시워셔 하시는분 일하고 있음  
식당테이블 17개 주 6일 근무, 주일은 쉽니다(인수가능)  
Warner Robins GA I-75 EXIT 160근처  
T. 615-714-8016

12/19  
**N [구인]**  
텍사스 샌안토니오 초가집  
가라오케에서 호스테스 구함  
숙식제공, 라이드 됩니다.  
T. 210-803-5194

1/2  
**N [구인]**  
마담,웨이터 구함  
수준높은 실리콘밸리지역  
손님 수준높고,팁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숙식제공(주급+TIP 월 6천 - 1만)  
산호세 지역 센스 룸살롱  
T. 408-990-5120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o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 청룡은 왜 '명량' 아닌 '변호인'을 선택했나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청룡영화상은 기성전 '명량'이 아니었다. 대중상이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남우주연상, 기획상, 기술상 등 '명량'에 4개의 트로피를 안겨준 것과 달리, 청룡영화상은 모두의 예상을 엮고 '명량' 대신 '변호인'을 최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

'변호인'은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3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진행 유준상, 김혜수)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영화 '끝까지 간다', '명량', '수상한 그녀', '제보자' 등 경쟁한 작품들을 제치고 최우수작품상 트로피를 거머쥐는 영광을 누렸다.

'변호인'은 최우수작품상 이외에도 남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 인기스타상을 추가하며 이날 행사의 4관왕에 올랐다. 남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은 각각 송강호와 김영애에게 돌아갔고, 임시완이 송승헌, 김우빈, 신세경과 함께 청정원인기스타상을 받았다.

송강호는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님 최민식 선배, 박해일, 이선균, 정우성과 함께 후보에 올라 가슴이 벅차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 여러분에게 나오듯 송강호라는 존재 자체도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나온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당초 '변호인'은 청룡영화상의 총 18개 부문 중 최우수작품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신인감독상, 각본상 등 10개 최다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명량'과 '끝까지 간다'가 나란히 7개 부문의 후보로 이름을 올려 쉽지 않은 경쟁을 예상케 했다.

'변호인'과 '명량'은 각각 최우수작품상과 남우주연상 부문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명량'은 대중상과 달리 최다 수상의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명량'의 등장여름 극장가에서 쓴 맛을 봤던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가 '명량'과 함께 음악상, 조명상, 촬영상 등 3관왕을 거머쥐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다.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도 눈길을 끄는 부문이었다. 대중상이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의 손예진에게 여우주연상을 줬던 반면 청룡영화상은 다양성영화 '한공주'의 천우희를 선택했다. 영화 '인간중독'의 임지연이 대중상의 신인여우상을 받았다면, 다양성영화 '도희야'의 김새론이 청룡영화상의 신인여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대중상이 흥행과 화제 면에서 작품을 고르는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 청룡영화상은 작품의 문화적 기여도를 염두에 두고 시상한 모양새다. '변호인'에서 송우석(송강호 분)의 대한민국 주권 명대사는 영화가 줄 수 있는 카타르시스로 관객들에게 크나큰 해방을 안겼고, '한공주'와 '도희야' 등 다양성 영화는 상업 영화의 또 다른 발전 기틀을 마련했다.

또 두 편의 다양성 영화의 수상은 2014년 영화계가 이례적으로 '한공주', '도희야' 외에도 '족구왕', '넵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 '비긴 어게인', '그랜드 부다페스트호텔', '인사이드 르윈' 등 다양성 영화 열풍에 휩싸였다는 점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aluem\_chang@news1.kr



## '미생' 감독 '임시완, 원톱 주인공 자질있는 친구'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미생' 김원석 감독이 장그래를 연기한 임시완에 대해 평했다.

김원석 감독은 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청담동 씨네시티 엠큐브에서 진행된 tvN 금토드라마 '미생' 김원석 감독 & 정윤정 작가 공동 인터뷰에서 "이번만큼은 톱클래스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 싶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원석 감독은 "이성민 선배님이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캐스팅을 해보겠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의 이름이 거론됐다. 그중 이제훈씨가 있었다"며 "이제훈씨만 거절할 게 아니다. 임시완을 포함해 다 거절 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캐스팅은 결국 하늘의 뜻이다. 임시완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던 거다. 그런 면에서 캐스팅 당사자는 임시완이다"며 "임시완이 자기 복을 자기가 가져간 거다"고 말했다.

김원석 감독은 또 "임시완이 원톱 주인공을 할 수 있다는 자질을 인정받았다는 게 기쁘다. 임시완에게 정말 많은 시나리오가 들어가고 있다고 들었다"며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친구다"고 칭찬했다.

한편 '미생'은 직장인의 애환을 사실감있게 그려내 이 시대 '미생'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다. '미생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평균 시청률 8% 돌파, 최고 시청률 10%에 육박했다. 오는 21일 20회를 마지막으로 종영한다.

ppbn@news1.kr



## 청룡 여우주연상 천우희 누구?

한공주 '씨니' '카트' 출연 연기파 배우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여우주연상 천우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천우희는 지난 17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5회 청룡영화상'에서 영화 '한공주'로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천우희는 1987년 4월 20일생으로 경기대학교 연기학과를 졸업했으며 2004년 개봉된 영화 '신부수업'을 통해 데뷔했다. 이후 영화 '허브', '마더', '씨니', '26년', '우아한 거짓말', '카트' 등에서 조연으로 연기력을 차근차근 쌓아왔다.

특히 천우희는 '한공주'로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 석 자를 각인시켰다. 그는 '한공주'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겪는 여고생으로 분해 극단의 상황을 오가면서도 섬세한 감정 연기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다.

천우희가 출연한 '한공주'는 누적관객수 22만4478명을 기록했다. 도빌 아시아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상, 국제비평가상, 관객상 3관왕을 차지하는 등 작품성으로도 인정을 받은 영화다.

여우주연상 천우희의 이력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우주연상 천우희, 하루 아침에 뜬 건 아니구나", "여우주연상 천우희, 우직하게 연기만 했네", "여우주연상 천우희, 앞으로도 좋은 영화 출연하길", "여우주연상 천우희, 앞으로 기대되는 배우" 등 반응을 보였다.

aluem\_chang@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4년 12월 1일 ~ 12월 7일

**1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33.4%



**2위** KBS1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24.1%

**3위** MBC 주말특별기획  
전설의 마녀 22.1%

- 4 SBS 아침연속극(청담동스캔들) 19.4%
- 5 KBS2 일일드라마(달콤한비밀) 18.2%
- 6 KBS1 KBS9시뉴스 17.9%
- 7 MBC 주말드라마(장미빛연인들) 17.5%
- 8 KBS2 해피선데이 16.4%
- 9 KBS2 개그콘서트 14.3%
- 10 MBC 무한도전 13.5%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4.99에 볼 수 있는 안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01 LUV Apink
- 02 잊지 말기로 해 성시경, 권진아
- 03 광화문에서 규현
- 04 HAPPY TOGETHER 박효신
- 05 세 사람(With 성시경) 토이
- 06 위아래 EXID
- 07 나는 달라 HI SUHYUN
- 08 GOOD BOY GD X TAEYANG
- 09 사뿐사뿐 AOA
- 10 내가 그리웠니 MC 몽

## 숫자 퍼즐 (Sudoku)

			3					2
			1	4	7	9		
	6		7	8			1	
		2				9		8
			1		2			
6		4				1		
	5		7	9				6
	8	6	4	2				
1				8				

12월 21일 - 12월 27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운수: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금전: 희망이 보이는 때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겠습니다. ●애정:행동하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3, 27일 길일. 22, 25일 주의.

**토끼띠 | 분위기에 휩쓸리다가는**

●운수:모임이나 회식자리에서 가게 될 일이 있겠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다가는 과음이나 과식을 하기 쉬우니 잘 조절해야 합니다. ●금전: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감정싸움은 자신은 물론이고 모두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때가 아니니 피해야 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4, 18일 길일. 16, 19일 주의.

**말띠 | 한 발 양보하고**

●운수:누군가와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발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본시 남의 손에 쥐어 있는 떡이 커 보이는 법입니다.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나아질 것입니다. ●애정:서로가 이번에는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1, 26일 길일. 22, 25일 주의.

**닭띠 | 지출에 있어서 신중해야**

●운수:상대가 누구든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부딪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금전:지출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 손을 떠나는 돈은 쉽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애정: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혼자 속상해하지 마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4, 27일 길일. 21, 22일 주의.

**소띠 | 환한 기운이 맴돌고**

●운수:힘들게 하던 문제를 매듭짓게 됩니다. 그동안 중단되고 침체되었던 일에 대해서도 환한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금전: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 종사자는 매상이 증가하니 신이 나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애정: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일과 사랑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4, 27일 길일. 23, 26일 주의.

**용띠 | 천군마마를 얻은 것 같이**

●운수:주위의 도움이 따를 것입니다. 천군마마를 얻은 것 같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샘솟게 됩니다. ●금전:일 처리가 손조롭게 척척 잘 진행될 것입니다. 자금회전도 잘 되는 때입니다. ●애정:멀어졌던 사이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회복의 시기가 왔습니다. 주위와 함께 나눌만한 기쁜 소식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1, 27일 길일. 23, 26일 주의.

**양띠 | 중심을 잘 잡아야**

●운수: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한 번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금전:절약을 하는 것과 인색한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애정:미리 거절할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도도해보지 못하고 두고두고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2, 25일 길일. 23, 26일 주의.

**개띠 | 백문이 불여일견**

●운수:타인의 실수를 관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훗날에 도움이 되는 인심을 얻게 됩니다. ●금전: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애정:밖에 일만 신경을 쓰지 말고 집안 단속부터 잘해야 하겠습니다. 집안문제가 밖으로 불거져 나와 체면 손상을 입거나 구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1, 25일 길일. 23, 26일 주의.

**범띠 | 충분히 누리도록**

●운수: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누리 수 있을 때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누리도록 하세요. ●금전:큰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가는 것은 많지만 현상유지는 됩니다. ●애정:뻘하고 흔한 말은 그리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말 한 마디가 더 와 닿게 해줄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2, 25일 길일. 24, 27일 주의.

**뱀띠 | 한 수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운수:한 수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올 상황들을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전: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관계는 지혜롭게 피해야 하겠습니다. 급한 마음을 버리고 때를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애정: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나치면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5, 26일 길일. 21, 27일 주의.

**원숭이띠 | 사랑이 쏠쏠 무르익고**

●운수: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으면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노력만 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의욕이 생겼고 능력이 오르면 평소보다 더 많이 활동하고 얻는 것도 크겠습니다. ●애정:사랑이 쏠쏠 무르익고 있습니다. 연인들은 시간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3, 27일 길일. 21, 24일 주의.

**돼지띠 | 즐거움이 클 수 있는**

●운수:언젠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지금 하세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먼저 하는 자세가 좋은 평가를 받게 해줄 것입니다. ●금전: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매매나 문서로 인한 이익을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애정:새로운 만남으로 인한 즐거움이 클 수 있는 때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2,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 무한도전 '토토가' 서현 · 예원

## SES · 쿨 완전체 그 이상일까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소녀시대 서현과 주얼리 예원이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이하 토토가)에 참여한다. 두 사람이 각각 임신 중인 SES 유진과 해외 거주 중인 쿨의 유리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며 '무한도전' 팬들은 물론 과거 90년대 아이돌 팬덤 문화를 형성했던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MBC '무한도전'의 '토토가' 특집 녹화는 18일 오후 MBC 일산드림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녹화에는 박명수와 정준하, 일본의 진행 하에 SES의 바다와 슈, 쿨의 이재훈과 김성수, 엄정화, 김건모, 지누션, 터보, 소찬휘, 김현정, 이정현 등이 참석해 무대에 오른다.

서현과 예원에게는 '토토가' 출연이 의미가 깊다. 90년대 가수들의 귀환을 위해 마련된 해당 특집에서 현직 아이돌 가수들이 출연, 한 무대에서 호흡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 멀게는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시작해 최근 서태지의 복귀까지 90년대 음악에 대한 관심이 끊임 없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토토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서현은 과거 SM엔터테인먼트의 선배 SES의 히트곡 '너를 사랑해'를 어떻게 재해석해 보여줄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재 바다와 함께 뮤지컬 '바



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오하라 역으로 더블 캐스팅된 만큼, 과거와 현재를 공유하는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원은 이날 주얼리 공식 SNS를 통해 '토토가' 무대를 위한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재훈이 예원을 두고 "우리 팀의 비타민"이라고 애정을 드러내 세 사람이 보여줄 무대 호흡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원이 쿨 특유의 경쾌한 느낌을 살리며 쿨의 명곡들을 온전히 구현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현과 예원이 출연하는 '무한도전'의 '토토가'는 오는 20일 오후 6시25분 방송된다.

aluem\_chang@news1.kr

# 한채아 화보 촬영장 화제

## 드라마 속 털털녀 아닌 고혹적 미녀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배우 한채아가 고혹적인 매력을 발산했다.

최근 화보 촬영을 진행한 한채아는 18일 공개된 사진에서 KBS1 일일드라마 '당신만이 내사랑' 속 송도원의 털털한 매력을 잠시 접어두고 성숙하고 매력적인 미모를 뽐냈다.

한채아는 외로우면서 고혹적인 여

인이라는 촬영 콘셉트에 맞게 매력 있지만 쉽사리 다가갈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여성으로 변신했다. 그는 화보 촬영 내내 다양한 포즈나 프로다운 눈빛 연기로 촬영에 임했으며 대기 시간에는 분위기 메이커로 나서 촬영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어 나갔다고 전해졌다.

한편 한채아가 여주인공으로 출연 중인 '당신만이 내사랑'은 매주 월~금요일 저녁 8시25분 방송된다.

ppbn@news1.kr



# 클라라 "안젤리나 졸리, 스칼렛 요한슨 보다 미모 순위 높다"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해피투게더' 클라라가 미모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클라라는 18일 밤 11시10분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의 '내가 최고' 특집에서 '최고의 얼굴'을 가진 스타 자격으로 출연했다.

이날 그는 MC들이 세계 미인 2위에 오른 것에 대해 언급하자 "1위는 저도 잘 모르는 해외에서 유명한 모델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 밑에 유명 영화배우들이 다 있는 거냐"는 MC 박미선의 질문에 "안젤리나 졸리도 있고 스칼렛 요한슨도 있다. 누구나 다 아는 분들이 리스트에 있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클라라는 "열심히 운동하고 꾸준히 관리하고 즐겁게 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해 미모의 비결을 공개했다.

aluem\_chang@news1.kr



# 이서진 "주부 습진 때문에..."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이서진이 습진이 생긴 손가락을 보여줬다.

이서진은 tvN 예능 '삼시세끼'를 옥택연과 함께 하고 있다. 이서진은 "택연이는 정말 착한 동생이다. 준비를 많이 해오고 열심히 하는데 안 좋은 버릇은 대중 한다는 거. 못 믿어서 설거지를 안 맡긴다"고 밝혔다.

또 그는 "손은 주부 습진 온지 오래 됐다"며 리포터에게 손가락을 보여줬

다. 이서진은 "우리 집 현관이 들어갈 때 지문 인식인데 '삼시세끼' 갔다오면 인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ppbn@news1.kr



#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i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 〈김씨의 뿌리(26)〉

## 훈족과 신라, 가야의 친연성 (5) : 활(弓)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반곡궁을 쓰는 훈족

훈족이 로마군을 압도했던 이유가 여러가지 있었다. 첫째는 훈족의 말은 유럽 말에 비해 지구력이 월등했고 두 번째는 말을 다루는 능력에 차이가 있었고 세 번째는 훈족은 말 안장과 말 등자가 구비되어 있어 전투 중에 달리는 말에서도 두 발로 말등자를 딛고 서서 상체와 두 손을 다 사용할 수 있었다.

믿기지 않는 사실은 훈족과 100여년을 싸우면서도 로마군은 훈족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말안장과 말등자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 적을 제압할 수는 없었다. 전장에서 이기려면 적을 살상시키는 무기가 있어야 한다.

활과 화살이 바로 그 대답이다. 로마 군사들도 훈족처럼 활과 화살이 있었다. 전장에서 활은 더 멀리, 더 강하게 쏠 수 있어야 하는데 로마군이 사용하던 장궁(長弓)은 훈족의 반곡궁이 가지고 있는 힘과 사정거리를 도저히 따라올 수 없었다.

활은 구석기 시대부터 모든 인류가 사용해 오던 수렵도구였다. 세계 각 지역에서 모두 사용했지만 만드는 재료와 성능에는 차이가 많았다.

활의 크기에 따라 2m 이상이 되는 장궁(長弓)과 1.3m 이하의 단궁(短弓)으로 나뉜다. 로마를 비롯한 유럽,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는 장궁을 사용했고, 한국, 중국과 흉노, 훈, 몽고 등 유목 민족들은 단궁을 사용하였다.

활은 두 손을 사용하여야 쏠 수 있는 무기라서 로마의 기병들은 달리는 말에서 활을 쏠 수가 없었다. 한 손으로는 고삐를 잡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또 활의 크기가 너무 커서 기병들이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웠다.

흉노, 훈, 한반도에서는 활의 크기가 적어 활을 안장에 걸치고 칼이나 창을 지참할 수 있었고 달리는 말에서도 제대로 조준해서 활을 쏠 수 있었다. 흉노, 훈과 우리 한족은 동일한 모양의 활을 사용하고 있었던 친연성이 있었다.

활을 만든 재료가 나무면 목궁(木弓), 대나무면 죽궁(竹弓), 쇠로 만들면 철궁, 물소 뿔을 가미해서 만들면 특별하게 각궁(角弓)이라 하였는데 사정거리에서 각궁의 성능이 단연 으뜸이었다.

한 가지 재료만으로 활을 만들면 단일궁, 여러 가지를 복합하여 만들면 복합궁이라 하였다. 한반도, 흉노, 훈족은 복합궁을 사용했는데 다른 말로는 반곡궁(反曲弓), 만곡궁(彎曲弓), 각궁이라고 불렀다. 중국에서는 우리 한민족이 사용

하던 복합궁을 맥궁(狛弓)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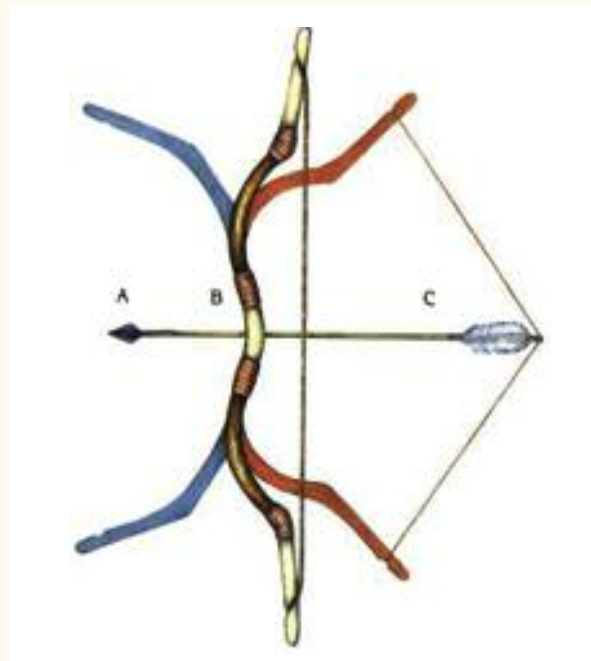
일찍이 중국 사람들이 한민족들이 사용하던 활의 위력이 월등해서 따로 붙인 이름이었다. 맥궁 하나를 만드는데 보통 5년이 걸리고, 이 활을 익히는데 10년에 걸렸다고 한다.

복합궁을 만드는 방법은 활 앞면에 물소 뿔 같은 뿔판을 대고 활 뒷면에는 동물의 힘줄을 붙여서 만들었는데 시위를 당기면 만곡 형태로 활이 휘었다가 시위를 놓으면 반대 방향으로 만곡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반곡궁, 또는 만곡궁으로 불렀다.

시위를 놓았을 때 만곡이 생기는 활은 반탄력이 커서 사정거리가 단일궁에 비해 월등하게 길게 마련이다.

로마군이 사용하던 장궁(長弓)은 시위를 놓으면 활 모양이 원래의 반달 모양으로 환원되고 만곡이 생기지 않는다. 즉 사정거리가 짧게 마련인 것이다. 올림픽 경기 때 사용하는 양궁도 로마의 활처럼 사정거리가 짧기 때문에 표적을 멀리 설치할 수 없는 것이다.

복합궁을 만드는 재료는 물소 뿔(水牛角), 소 힘줄, 대나무, 뽕나무, 뱀나무 껍질, 민어부레풀(아교) 등 6가지였는데 물소 뿔은 한반도나 북방 유목민족들이 사는 곳에서는 없는 물



복합궁, 조립식활의 작동원리

건이라서 베트남에서 들여왔다고 한다. 삼국 초기에 고구려와 백제는 물소 뿔을 들여올 수 있었지만 신라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물소 뿔을 사용한 반곡궁은 반탄력을 증가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각궁(角弓)이라고도 불렀다.

활의 길이는 1m 20cm에서 1m 30cm 정도로 작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말안장에 걸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 훈족이 사용하던 반곡궁의 사정거리는 200m였는데 150m 안에서 명중되면 갑옷을 관통할 수 있다고 한다.

로마 병사들의 주 무기는 창이었는데 사정거리가 길어야 30m였다.

그러니 훈족은 대치거리 200m에서 30m로 접근할 때까지 일방적으로 로마군을 공격할 수 있었다. 로마군이 적들의 정



훈족이 몸을 돌려 뒤를향해 활을 쏘는 장면. (이태리 성당에 있는 그림)

체를 파악도 못하고 있을때 훈족이 쏘아대는 화살이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듯 날아와 로마군의 갑옷을 종이 뿔듯 관통하였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였다.

훈족의 화살촉은 삼각형 모양으로 쇠로 만들었는데 갑옷을 쉽게 관통시킬 수 있었다. 이런 화살을 보통 개인당 30개 정도 지니고 싸웠는데 그 정도 화살이면 한 번의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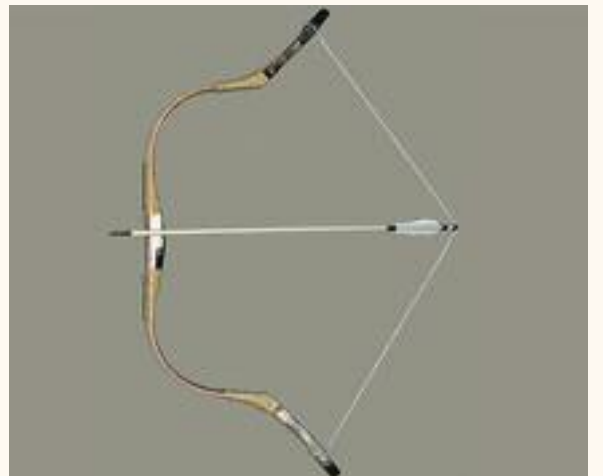
당시 유럽인들은 훈족의 공격을 폭풍우에 비유하였다.

저 멀리서 검은 구름이 일기 시작하면 곧 이어 천둥소리처럼 요란한 소음이 들려왔다. 검은 구름은 흉노 기병이 질주하면서 일으킨 흙먼지고 천둥소리는 말발굽이 지면과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였다. 곧 이어 억수같이 쏟아지는 화살비를 일방적으로 맞아야만 했었다.

화살비를 간신히 피하고 목숨을 건졌을 때는 로마군이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이어서 벌어지는 접근전에서조차 로마군은 불리함을 감수하여야만 하였다.

훈족의 검은 양날검이라 양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었지만 로마군은 찌르기만 할 수 있는 검이라서 그 위력에서 차이가 많았다. 훈족 병사 한 사람을 상대하려면 20명의 로마 병사들이 필요했다고 한다.

당시 로마의 기병들은 말안장이 없어서 말등에 가죽 한 장 깔아놓고 싸웠기 때문에 접근 중에 말에서 떨어져 죽는 경우가 많았고, 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 손으로는 말 고삐를 꼭 쥐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손만 가지고 칼, 창을 휘둘러야만 했고 상체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어려웠다고 한다.



형거리활. 흉노의 복합궁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KOREAN • SUSHI • WINES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973.6680  
SeoulFoodBoston.com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이제 불가능은 없다”**

**{ 제한 없이 }**

공간에 제한 없는  
PC에서  
시간에 제한 없이  
24시간 내내  
온라인으로 수강가능!


**{ 모두 인정 }**


한국대학도  
인정하고  
미국대학도  
인정하는  
대학 교양학점 취득!

서울디지털대학교 시간제 등록  
<http://time.sdu.ac.kr> · 82-2-2128-3232 · time@sdu.ac.kr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신영의 **세상 스케치**

478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역시, 태백은 태백!

누군가, 그 누구인가 시샘이라도 하듯이 '칼바람'은 불을 얼얼하게 만들더니 '불의 살점' 한점 도려낸 듯 감각마저 삼켜가 버린다. 그렇게 태백이 마중하던 '칼바람'과 함께 오르고 또 오르며 아리도록 시린 '칼바람'에 불이 떨어져 가고 마중한 '칼바람'에 힘겨워서 더욱 간절할 그런 오름. 내 가슴에 오롯이 남을 '애뜻한 추억'을 또 하나 담아왔다. 눈꽃이라도 활짝 반겨주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역시, 태백은 태백!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의 영역! 높은 산 깊은 골짜기를 휘도른 바람 소리마저 강한 기운을 불러오는 역시, 태백은 태백이었다. 몇 년 전 눈꽃이 활짝 핀 태백산을 오르는 내내 그 아름다움에 그 황홀함에 그만 할 말을 잊고 말았었다.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어서 그 고운 추억을 떠올리며 이번 여행에서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겨울산행이었다. 한국을 방문하면 여느 친구들보다 산 친구들과의 만남이 편안해 좋고 바쁜 일정 중에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돌아오게 되는 친구들이 산 친구들이다. 이렇게 이번 여행에서도 가깝게 지내는 산 친구들과 눈꽃이 활짝 핀 덕유산과 또 밤 기차를 타고 올랐던 태백산은 살을 에는 듯한 '칼바람'에 불을 내밀며 올랐던 잊을 수 없는 태백산의 또 하나의 추억이 되었다.

태백으로 가는 길

태백으로 가는 길  
 검은 여둑을 가르고 자정을 향해  
 많은 인파들 속 흔들리는 열차 안  
 소리 없는 말을 속으로 삼키며  
 이미 태백을 오르고 있다  
 어둠이 채 가시기 전  
 계사년(癸巳年) 뱀띠해의 새벽은  
 태백역에서 마중을 하고  
 태백산아래 당골로 향하는 우리를  
 칼바람으로 맞이한다  
 오래전 태백의 정기를 받으려  
 무녀들이 살았을 당골에 들어서니  
 시린 뱃속 안 아직 남은 정성이 느껴지고  
 그 영험한 태백의 기운이  
 이미 몸 속을 돌고 돌아 휘몰아 친다  
 당골을 지나 오르기 시작하니  
 쌓인 눈 속 깊이 고인 샘물이 햇살을 기다리고  
 산 중턱을 넘어서니  
 가파른 숲이 턱까지 차오르고  
 등엔 흐르는 땀줄기 얼골엔 서리꽃이 핀다  
 운무에 덮인 먼 산새를 바라보며  
 물이선 숨을 고를 새  
 저 멀리 문수봉이 눈 앞에 와 있고  
 정성으로 쌓아올린 돌탑이  
 너른 가슴으로 우리를 맞아준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산다는 태백산 주목의 상고대  
 울곧이 맞은 세월이 전설이 되고  
 정성스레 쌓아올린 천제단의 돌무덤은  
 하늘과 세상을 잇는 천상의 다리가 되었다

"태백산은 높이 1,567m이다. 설악산·오대산·함백산 등과 함께 태백산맥의 '영산'으로 불린다. 최고봉인 장군봉(將軍峰:1,567m))

과 문수봉(文殊峰:1,517m)을 중심으로 비교적 산세가 완만해 경관이 빼어나지는 않지만 웅장하고 장중한 맛이 느껴지는 산이다. 산 정상에는 예로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천제단(天祭壇:중요민속자료 228)이 있어 매년 개천절에 태백제를 열고 천제를 지낸다. 불거리로는 산 정상에 고산식물과 주목 군락, 6월 초순에 피는 철쭉이 유명하다. 태백산 일출 역시 장관으로 꼽히며, 망경사(望鏡寺) 입구에 있는 용정(龍井)은 천제의 제사용 물로 쓰인다."

산은 언제나처럼 나 자신을 바로 바라보게 한다. 내 걸어온 발자취를 잠시 돌아보게 하고 앞의 방향을 바로 보게 하고 제대로 바라보게 하는 힘(기운)을 내게 준다. 늘 변함없이 언제나처럼 침묵으로 맞아주고 기다림으로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산은 이제 내게 아주 가까운 친구이고 함께 호흡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삶의 희로애락 속에 내 속을 열어 보여줄 수 있는 편안하고 믿음직한 나의 멘토가 된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12월의 하루를 맞이하며 깊은 내면의 나를 바라보게 하고 그 속에서 요동치며 갈등하던 무수한 것들을 정리하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다. 산과 사람 그 사이에 흐르는 자연의 기운은 표현으로는 어려운

느낌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호흡하며 느끼는 그 황홀함이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내 깨닫는 것이다. 그 이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 도 그럴 그러나 지금에 느끼는 그 황홀함으로 만족한 오늘이기에 더욱 감사한 것이다. 어제가 있어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 또 내일이 있지 않겠는가. 어제로 인해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내일로 인해 오늘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깊은 호흡으로 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다.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오늘의 나의 삶이 이 세상과 더불어 존재함에 감사함이 가득하길 기도한다. 태백산을 오르며 나는 또 생각에 머물렀다. 아니, 그것은 생각이 아닌 나의 기도였다. 저 웅장한 자연 앞에 너무도 작고 나약한 나의 존재를 또 느낀 것이다. 그만 나는 또 무릎 꿇고 말았다. 당신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임을 또 고백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었다. 산을 오르는 내내 친구의 발자국을 따르며 침묵으로 올랐다. 자연과 함께 사람인 내가 그리고 친구가 우리로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족한 것을 이미 안 깨달았다. 산은 그래서 산이다. 그 어떤 각양각색의 모두를 포용하고도 내색하지 않으며 오랜 기다림에도 지지 않는 큰 산. 역시, 태백은 태백!



한담객설閑談客說:  
**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날이 추우면 물은 얼어 얼음이 된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과학자는 쉬운것도 품 잡고 말한다. '물은 섭씨 영도零度에서 얼음이 된다.' '물의 어는점, 곧 빙점氷點은 액체인 물과 고체인 얼음이 공존하는 온도'. 다시 비와 눈이 섞였다. 비가 더 우세했다. 보스톤 기온은 섭씨 영도零度 근방인 모양이다. 그러니 날씨는 짓궂어 쓸씨넨스럽다. 그나마 눈이 아닌게 다행이다. 그게 눈썹이라면 눈썹에 설경을 애써 즐겨(?)야 할지도 모르는 터.

성탄절 즈음에 모두 안녕들 하신지. 아이에게 물었다. '사이먼 앤 가펩클'을 아느냐? 'Who?' 돌아온 대답이 당연한 반응이다. 아이가 알기에는 너무 오래됐다. 그룹 멤버들 이름이 풀과 아트였는데 '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를 기억하시는가. 라디오에서 다방 뮤직박스에서 길가 전파사 스피커에서 흘러 나오던 그 노래다. 나 역시 자

의만 타의반 자주 들었기에 기억하고 있다. 올라가는 목소리는 갈라지지 않았고, 음률은 고왔다. 소리치지 않아 괴성이 없으니 안온했던 게다. 현대, 이 노래는 가펩클이 혼자 불렀던가?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When tears are in your eyes/I will dry them all  
 I'm on your side/When times get rough/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당신이 지치고 초라할 때/당신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당신 눈물을 닦아 드릴게요. 내가 당신과 같이 있겠어요/오, 세상살이 힘들고/친구도 없을 적에/이 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내몸을 높히겠어요.'  
 (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Bridge Over Troubled Water)  
 묘사 오고가는 차안에서 이 노래와 사이

면과 가펩클을 듣는다. 아주 오래전에 차안에서 뒹굴던 시디인데, 찾아서 듣는다. 노래는 다시 들어도 편안하다. 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내 한몸을 높혀 다리가 되겠어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은게 언제였던가 싶은데, 사이먼 앤 가펩클도 즐기기에 나쁘지 않다.  
 해마다 성탄절 즈음이면 사건사고가 연달아 터진다. 또 하나 사고가 터졌다. '팡공사건' 이란다. 덕분에 신문 방송들만 신났다. 사건과 이슈에 목말라 했을 참인데 말이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절과 같이 하는 선언인데, 세상이 어지러워 그런가. 힘한 세상이라 이런가. 그것도 아니면, 사건 할당량을 채워야 하기에 그런가. 하늘과는 달리 땅에서 들리는 소리는 살벌하고 우울하다. 쉬어 갈라진 목소리에 흥흥한 풍문만 무성하다. 덩달아, 세상만사 통달듯한 논객에 식자識者들이 제각각 한마디씩 늘어 놓는다. 그러나 총론은 옳고 지당하건만, 각론이 오활하다.

말은 그럴싸 한데, 도무지 뭘하자는 소린지 막연하다. 진단은 있는데, 처방은 어리숙하다. 차라리 귀도 닫고 입도 닫고 싶다. 가만히 내리는 겨울비 소리만 듣고 싶은 게다.  
 대한항공 회장님 사과문謝文을 얼핏봤다. 딸을 잘못키워 미안하다고? 딸이 잘못된 일인가 아니면 그 회사 부사장이 사고를 냈는가? 아리송하다. 사고는 있는데, 뒷수습은 영성 한계다. 하나마나한 소리는 안하느니만 못할 터. 아아, 귀막고 눈감고 누워야 할지니. 편안히 쉬어야 겠다. 사이먼 가펩클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듣는게 나을지도 모른다. 힘한 세상에 사는 당신,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 11:28)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 보스톤 가이드 앤 맵



## 이제 미국과 중국 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 때입니다!

###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타겟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전격 배포될 예정입니다.

####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내년 2월 발간하여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매출을 한단계 높여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선정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베스트 업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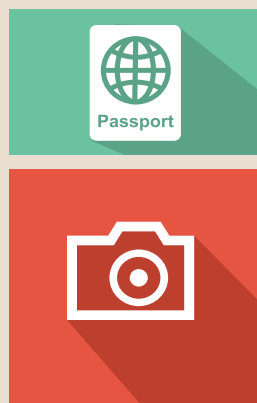
####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안 고객들을 한국 업소로 불러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택이 내년 매출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61 해방 후 무림武林의 대가(大家)들(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일제의 강점기가 너무나 길었고 우리문화의 말살정책이 얼마나 가혹했는가는 이견의 여지餘地가 없다. 무예의 측면에서만 봐도 해방 무렵에는 우리의 무예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일본의 가라데가 잠식하고 있었다. 한두 세대를 거치면서 전승되지 못한 무예는 갑자기 해방을 맞으면서, 일제시대 당시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수련한 무인들에 의해 도장들이 개관되었다. 1950년대 말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체계화된 우리의 무술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에서 들어온 유도, 가라데의 우리말인 당수도(또는 공수도) 외에 중국의 영향을 받은 권법 등이었다. 이 권법을 무예도 보통지의 권법을 비전秘傳한 무예라고 하기엔 자괴감이 드는건 무도인의 양심일까? 통분痛憤일까?

어수선한 국내 정황상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해방 후 무술 도장은 도처에서 개관하면서 그간 쌓였던 울분을 기합으로 토해내곤 하였다.

우리나라 태권도의 현대사는 대단히 방대하다. 그리고 중추 문파의 창관자나 초대관장들은 거의 유명을 달리하였지만, 아직 2,3대 관

장들과 개관 당시의 문학생들이 생존해 있는 관계로 열키고 설키 당시의 계보와 그들의 역학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립하기엔 아직도 시기 상조인 면이 많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간 정확하게 고찰된 현대 태권도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초창기 9대 문파門派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97)

우리나라 태권도의 토대가 되고 현재의 태권도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한류의 시조이자 민간외교의 그 역할을 특출히 하는데는 초창기 태권도인들의 사명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초창기 5대 기간도장인 청도관, 무덕관, 조선연무관(지도관), YMCA 권법부(창무관), 송무관 등에 오도관, 강덕원, 한무관, 정도관의 4개관을 보탠 9관이 우리나라의 현대 태권도가 태동된 도장들이다.

먼저 '청도관' 을 보자. 청도관靑濤館, 글자 그대로 '푸른 파도' 를 의미하며 청년의 기상과 활동력을 상징으로 삼는다. 관원들은 청도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창설되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청도관 창설자인 이원국李元國은 19세 때인 1926년에 일본에 건너가 중,고교를 거친 뒤 일본 중앙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는데, 이때 일본 가라데(공수도)의 본관인 송도관松濤館(쇼도칸)에 입문했다. 거기

서 일본 가라데의 시조라 일컬어지는 후나고 시 기친船越義珍으로부터 가라데를 전수받았다. 이곳에서 이원국은 송무관松武館의 창설자인 노병직과 함께 가라데를 배운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청도관과 송무관은 일본 송도관의 제자들이 세운 가라데(공수도)도장이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도장 이름도 송도관의 '도' 를 넣어서 '청도관' 으로, 또 송도관의 '송' 자를 이어받아 '송무관' 으로 하였다. 이원국은 1944년 9월15일 서대문구 옥천동에 있던 영신학교 강당을 빌어 우리나라 최초로 '당수도' 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다. 하지만 정식으로 간판을 달고 전수를 시작한 시기는 1946년 2월 27일이라는 게 태권도계의 정설이다. 6.25동란 직후 청도관의 관원은 약 200여명으로 전제지며 당시 이원국 관장은 일 주일에 2번 정도 도장에 나와 수련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때 수련 지도는 유응준과 손덕성이 하였고 승급심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치러졌다.

청도관 출신으로는 유응준, 손덕성, 엄운규, 현종명, 민운식, 한인숙, 정영택, 강서종, 백준기, 우종립, 남태희, 고재천, 곽근식, 김석규, 한차교, 조성일, 이사만, 이준구, 김봉식 등 태권도를 세계적으로 전파하여 발전시킨 많은

무도인들을 배출하였다.

청도관 분관分館(지관支館)으로는 인천을 중심으로한 강서종의 국무관國武館, 서울 서대문구 이용우의 정도관正道館, 광주 고재천의 청룡관靑龍館과 최흥희의 오도관吾道館 등이 있다.

청도관은 초대 관장인 이원국에 이어 2대 관장은 손덕성, 3대는 엄운규로 이어졌다. 손덕성이 관장직을 맡았을 때인 한국전쟁 당시에는 일본으로 밀항한 이원국 관장 명의의 임명장을 놓고 엄운규, 현종명, 남태희 등이 갈등을 빚었다. 또한 2대 관장 손덕성과 최흥희와의 마찰 등으로 손덕성은 도미渡美하였고 그는 미국에서 태권도를 널리 전파하였다. 그리고 3대 관장에 오른 엄운규는 후일 김윤용을 도와 세계태권도연맹(WTF) 부총재 직으로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태권도의 스포츠화와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97) 참고 문헌: 태권도 현대사(강원식, 이경명 공저, 보경문화사, 1999), 태권도지도이론(김대식, 김광성 공저, 나남, 1987), 태권도의 역사-네이버 지식iN.

###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토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기만: 퍼저슨 2014, 디트로이트 1967, 그리고 시카고 1919 (2)

(지난 주에 이어)

1977년 디트로이트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은 빈곤층과 부유층간의 장벽이면서 동시에 흑인과 백인 간의 장벽이었다. 여기서 잠깐. 디트로이트 사태가 발생했던 1967년은 “흑인 민권운동의 승리” 로 기억되는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이 차례로 제정된 (이후)였다는 점도 가뭄이 여길 수는 없겠다. 흑인 민권운동은 남부 흑인들에게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흑백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했다. 특히 대도시 빈민가의 흑인들에게, 민권운동의 가장 강력한 지원이었던 “비폭력” 저항만으로는 커져이 쌓인 차별을 철폐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보다 급진적인 의미에서의 흑인 해방 혹은 흑인 민족주의 등을 주장하는 “블랙파워” 운동이 일기도 했던 시기였다.

흑인 민권 운동의 대부인 마틴 루터 킹 목사. 민권법 제정 이후 그는 시카고로 갔다. 경제적 평등은 인종간 평등을 구현하는 또 하나의 선결과제라 여겼기에, 북부에서의 킹 목사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인종간 거주지 분리의 문제였다. 거주지의 차별은 교육과 경제적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기 마련이었기 때문이다. 시카고의 경우, 백인들은 도시의 교외 혹은 북부에 거주한다면, 흑인들은 남쪽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식으로 인종간 거주지 분리가 분명했다. 1950년대 이후 백인 인구가 교외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

차원에서 흑백 거주지 분리 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까지 했으니.

시카고가 태생부터 흑인들에게 장벽을 쌓은 도시는 아니었을게다. 남부 주들과는 달리, 일리노이에서는 재건시대 이래로 흑인 (남성)들의 참정권이 거부되었던 적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노예제 시절보다도 약탈했던 인종차별이 남부 흑인들의 삶을 더욱 압박하게 했던 1880년대 후반 이후로, 흑인들은 진정한 자유를 찾아,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남부를 떠나 산업화된 대도시로 대거 이주했는데, 시카고는 디트로이트, 뉴욕 등과 마찬가지로 흑인들에게 일종의 관문도시 (Gate City)였다. 이렇게 이주한 흑인들은 자유인, 새로운 흑인 (New Negroes)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한다. 흑인들의 이동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세계 1차 대전 시기로, 전쟁 특수로 생겨난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가 많은 흑인들을 유입한 대이주 (Great Migration) 현상을 만들었다. 물론 새롭게 이주한 이들 사이에는 참전이나 군수물품 생산이라는 '애국적인 행위' 를 통해 백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노력 혹은 선동도 존재했다.

어쨌거나 1918년 11월 11일 연합국과 독일 사이에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전쟁이 끝났다. 1919년 4월에서 11월까지 미국 전역에서 크고 작은 인종간 유혈사태가 약 25건 발생했는데, 그

중 시카고 시내 곳곳에서 약 3박 4일간 벌어졌던 시카고 인종 폭동(Chicago Race Riot, 1919)의 경우, 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23명의 흑인과 15명의 백인이 사망하는 등의 인명 피해와 더불어 1000여 흑인 가정의 거주지가 불타거나 파손 당하는 등 가장 폭력적인 유혈 사태였다.

이 어마어마한 폭력사태의 발단은 외견상 '우연' 이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1919년 7월 27일, 다섯 명의 흑인 청소년들이 미시건 호수로 물놀이를 갔다. 파도타기를 하며 즐거운 때를 보내던 이들 중 한 소년, 유진 윌리엄스가 파도에 쓸려 자신도 모른 채 '비공식적으로 백인만 노는' 호숫가 쪽으로 떠밀려갔다. 같은 시간, 일군의 흑인 남녀들이 물놀이를 위해 '그' 호숫가변으로 들어오려다 일군의 백인들에 의해 저지당한다. 두 그룹 사이에 사이에 고성과 샷대질이 오갔다. 감정이 격해졌던 백인 중 누군가가 윌리엄스에게 돌을 던졌다. 이로 인해 윌리엄스 군이 익사했다.

그날 오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달려왔다. 흑인 목격자들이 돌을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 지목했지만, 백인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기를 거부했다. 흑인 군중들이 분노했다... 그리고 그날 밤, 백인 갠단이 흑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했던 사우스 파크 지역을 공격했다. 일명 “블랙 벨트” 로 불리는 지역에 집중된 방화

와 살상으로 인해, 시카고는 폭력과 혼동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었다. 대규모 소요는 3-4일 후 잦아들었지만, 크고 작은 무력 사태는 약 2주간 지속되었다.

시카고의 1919년 인종 간 소요 사태는 그 해에 이 도시 저 도시에서 벌어졌던 인종 소요 중의 '하나' 이다. 그런데 시카고의 사태가 보다 그 어느 곳보다도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백인 갠단 활동을 주도했던 “Athletic Clubs” 는 인종주의 성향이 강한 아이리쉬계 백인 청년들이 주축이었다. 윌슨 행정부의 보고서가 시사하는 대로, 그 소요들의 배경에는 1차 대전과 함께 급증한 흑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과 주거지와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백인 갠단이 살상과 방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폭력이 가중되었다. 그런데 흑인들 중에서도 백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사는 이들이 가장 집중적인 린치의 대상이되었다. 블랙벨트를 넘어섰다는 것에 대한 보복이었을까?

오늘의 퍼저슨 사태를 돌아보면, 거의 한 세기가 지나고 제도적 차별이 없어져도 여전히 남아있는 인종간 분리와 차별이 낳은 비극에 대면한다. 인종 사태들은, 어쩌면 계토에서 잠자코 있으라는 기만의 결과물일 것이다.

희망사항  
 홀로 된다는 것  
 숙녀에게  
 미워서 미워질때  
 지금 이대로  
 사랑 그놈  
 비와 당신  
 로라  
 그대에게  
 새들처럼  
 너무 늦었잖아요  
 사랑이 올까요  
 구름 닮은 친구  
 그대 내게 다시  
 그대만의 모습  
 저 하늘을 날아서  
 가장 슬픈날의 왈츠  
 너에게로 또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대  
 안녕이라 말하지 말아요  
 내게 줄 수 있는건 오직 사랑 뿐

싱글맘을 위한 희망나눔

# 변진섭 콘서트

5인조 하영석 밴드 **pav** M&C

2015년  
**1월15일**  
 목요일 오후8시

## 티켓

\$30, \$50,  
 \$70, \$90,  
 VIP\$120  
 (가수와 사진촬영 가능)

## 판매처

**교차로**신문사  
 718-460-0114  
 단체티켓 문의 환영

## 한양마트

**티켓마스터**  
 www.ticketmaster.com

**뉴저지 버겐팩**  
 Bergen Performing Art Center

30 North Van Brunt St.  
 Englewood, NJ 07631

크리스마스 & 새해맞이  
**특별 할인 이벤트** 2014년 12월31일까지



교차로에서 여섯장이상 구매시 **20%** 할인  
 총구매금액의



**셔틀버스 운행 (뉴욕 플러싱)**  
 선착순 100명 왕복요금 \$20  
 1차 출발: 오후 6시 한양마트 앞  
 2차 출발: 오후 6시20분 공영주차장 앞  
 \*\*본 버스 티켓은 예약 또는 구매시 함께 구매하셔야 합니다.



독자기고  
김철

# 미국서부 지질학기행 만리길 2

## 6. 다시 찾은 그랜드캐년

1983년에 3년간의 뉴욕주재 근무를 끝내고 귀국하는 길에 이 곳을 여행하였는데 이번에 31년만에 다시 찾게 되었다.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도 다시 보면 시큰둥해지듯이 천하절경도 이번에는 그리 큰 감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다만 이런 지형이 생겨나기 위하여 이 지구가 겪어온 20억년에 걸친 지각운동과 풍화와 침식의 세월을 생각해 보면 우리 짧은 인생이야 그저 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런데, 지구의 기나긴 역사를 이곳에서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종교집단에서는 창조론을 고집하면서 지구의 나이가 6000년밖에 안된다고 우기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창조론자들여,

엘로스톤, 아치국립공원, 나바호 모뉴먼트 벨리, 그리고 그랜드캐년 등 지질공원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제발 그 미망에서 깨어날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수년 전에 63빌딩 아이맥스극장 대형스크린에서 그랜드캐년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는데, 실제보다 더 실감나게 제작된 영화로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7. Skywalk와 Grand Canyon West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바로 서쪽 인디언보호구역 안 (Hualapai Indian Reservation)에 skywalk를 설치하는 등 공항과 카지노와 케이블카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수익모델이 대성공해서 미국의 원주민들이 부자가 되면 참 좋을텐데. 그런데, 여기 잠깐 둘러보는 데에 75불씩 받는다.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까지는 네 시간 이상 걸리는 데 비하여 이곳까지는 두어 시간이면 올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꽤나 몰리고 있다. 여기서 헬리콥터나 비행기로 캐년을 관광하면 170불이나 든다. 우리는 이미 국립공원에서 충분히 구경도 했었고 또 경제사정도 고려하여 75불씩만 지출하기로 했다.

우리가 갔을 때에는 공항확장등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는데, 케이블카 등 관광 인프라가 완성되면 국립공원에 견주어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 해발고도가 대충 2000m 쯤인데 거기서 1500m를 내려가야 계속 아래로 흐르고 있는 콜로라도 강에 이를 수 있는데,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계속의 바닥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되니까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안에는 공항이나 케이블카 설치를 꿈도 못꾸는데 반하여, 비록 여기서도 환경론자 등으로 부터의 저항 등 적지 않은 논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국립공원을 살짝 벗어난 이곳 인디언보호구역은 비교적 개발이 자유로운 모양이다. 아마도 지금쯤 백인들은 이 지역까지 국립공원화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지나 않을까?

물론 풍광면에서는 본 국립공원에 비하면 골리앗과 다윗으로 비유될 정도이나, 비행기로 협곡을 돌아보면 더 근접해서 생생하게 볼 수 있기에 그 약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중 Eagle Point에서면 두 번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수리 형상의 지형을 조망할 수 있다.



그랜드 캐년 동쪽에서는 이 곳 서쪽보다 엄청 큰 개발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도 백인들이 그어놓은 국립공원구역에 벗어난 나바호 국가의 땅인데, 수억달러를 들여서 1500m 아래 계곡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누구나 쉽게 캐년의 아랫부분까지 구경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포함해서 대규모 고급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수년 전에 발표했다. 이름하여 Escalade 프로젝트라고 한다. 그런데, 백인정부와 환경론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사실, 원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관광자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실한 문제인데, 배부른 사람들의 시각은 크게 다른가 보다.



# “보스톤엔 보스톤**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오스템 임플란트 무식제 라이네이트 오스템 미백 1회

150만원	80만원	20만원
120만원	60만원	+1회 제공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아늑하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 에피끄 에스테틱 특별할인

에피끄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19만원 → <b>15</b> 만원	스페셜 힐링 스킨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20만원 → <b>16</b> 만원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25만원 → <b>20</b> 만원
전신 울라스틱 이온마 케어 - 이온마 전신케어 + 감미보습케어 32만원 → <b>26</b> 만원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감미보습케어 38만원 → <b>30</b> 만원	나이가 들면 것은 지울 수 없지만 비밀스럽게 나이 드는 방법은 있다. 에피끄만의 특별한 관리로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춰주세요.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 95만원 → **80**만원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해탈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질성형술, 정관수술, 정관복합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면 윤곽술, 안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잘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얼굴) 700만원 → 500만원	안면거상술 (목 포함) 800만원 → 600만원	메쉬 리프트 400만원 → 300만원
상안검 200만원 → 150만원	하안검 200만원 → 150만원	중안면 거상 300만원 → 200만원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행사기간** 2014년 12월 ~ 2015년 2월

해외 의료 사업 팀장 김수남

**HURAM** www.huramkorea.com 휴람의 네트워크형 전문 서울 강남과 압구정에 있습니다.

미국문의: 818.331.0401 카카오톡: 010.3469.4040 한국문의: 82.70.4141.4040

이메일: huramceo@huram.kr

**TALK**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사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61) 직장인들의 은퇴플랜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제공되는 은퇴플랜 401(k), 403(b), 457, TSP, 등을 최대한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 년에 \$7,000씩 8% 이자에 30년 투자하면 \$900,000 이상이 됩니다. 꾸준한 투자로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 노동국의 협조로 은퇴플랜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은퇴플랜에 투자하기 전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 \*은퇴투자에 자동가입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은퇴플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은퇴플랜 가입률이 67%에서 최근 78%로 확대되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임에는 틀림없는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으로 투자하는 비율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입니다. 직장인 일부는 회사에서 3% 자동투자가 되므로 이것이 노후대책으로 바람직한 비율로 생각합니다. 여

기에 본인이 3%를 더하면 은퇴자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투자비율은 15%입니다. 만약 6%로 저축을 시작했다면 그 후 봉급인상이나 보너스 금액 전액을 저축하는 것이 노후대책으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투자 비용

미 노동국에서 새롭게 요구한 규칙에 의하여 은퇴투자 종목의 경비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투자 종목의 평균 경비가 약 0.94%이며 어떤 은퇴플랜에서는 3% 이상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투자경비가 많이 부과된다면 회사에서 매칭(matching)해주는 비율만큼 반드시 투자한 후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IRA에 별도로 \$5,500 (50살 이상이면 \$6,500)를 투자하기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회사 은퇴플랜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7,500 (50살 이상이면 \$5,500 추가)

입니다.

### \*인덱스 펀드

학교와 경제 연구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은 인덱스 펀드와 비교해서 많이 뒤떨어집니다.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보다 높을 확률은 약 15~20%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펀드 매니저에 의해서 운용되는 뮤추얼 펀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집니다. 한 예로 10년 전에 존재했던 뮤추얼 펀드의 41%가 없어졌다는 기사가 머니(Money) 잡지 2014년 3월호에 나와 있습니다.

은퇴플랜을 운영하는 회사는 투자종목으로 인덱스 펀드를 포함하기를 꺼립니다. 인덱스 펀드의 경비가 너무 저렴하기에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회사에 인덱스 펀드를 은퇴플랜 투자종목으로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가 은퇴플랜 투자종목으로

선정될 때까지는 인덱스 펀드와 비슷한 뮤추얼 펀드와 경비가 저렴한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은퇴자금에서 론(loan)

직장인 일부는 은퇴자금에서 론을 받아 부엌 등을 예쁘게 꾸밈니다. 심지어 론을 받아 하와이로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내 돈에서 빌린 후이자와 함께 내 돈에 다시 갚기에 아무런 손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론을 얻으면 그만큼 액수가 투자된 것이 아닙니다.

피델리티 회사에서 S&P 500을 198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살펴봤습니다. 35년 동안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상승한 단 5일 동안 나의 돈이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지 않았다면 시장에 계속 투자한 사람보다 수익률이 무려 35% 감소했다는 결과입니다. 또한, 이자로 내는 돈을 세금을 낸 돈입니다. 은퇴한 후 이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또 다시 내야 합니

다.

### \*회사주식 투자

은퇴플랜 투자종목으로 몸담고 있는 회사주식이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자기 회사 주식에 투자합니다.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익숙한 회사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회사의 충성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투자 기본인 분산투자에 어긋나는 투자 방법입니다.

엔란(Enron)에서 일하던 직장인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건강보험을 잃고, 은퇴자금, 등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뼈 아픈 경험임이 틀림없습니다. 자기 회사 투자는 아무리 유망한 회사라고 생각해도 은퇴자금 전체에서 1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 해외계좌신고 간소화 규정 (2) (2014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 해외거주자(Non-residents)를 위한 간소화 규정

지난 주에는 미국에 거주자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해외계좌신고 간소화 규정(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라 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주는 미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해외계좌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라 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 2. 해외거주자(Non-resident)를 위한 규정

해외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해외계좌신고 간소화 규정은

- ① 아래의 해외거주자요건(non-residency requirement)을 충족한 자가
- ② 해외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하고(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았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물론 소득 및 계좌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어야 합니다(non-willful).

### 해외거주자 요건(non-residency requirement)

위에서 해외거주자요건을 충족한 자란 아래와 같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로 나뉘 볼 수 있는데, 어느 경우든 최근 3년의 기간중 '어느 한해'만 해외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거주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부가 합산 신고하는 경우(married filing jointly)는 부부 둘 다 해외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최근 3년의 기간 중 어느 1년 또는 그 이상 미국내에 일상적인 거소(abode)를 두지 않았던 자와 330일 이상 미국외의 해외에서 거주한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2013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13년, 2012년, 2011년 중 3년 내내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 중 어느 한 해만 외국에 살았어도 해외거주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자도 일정기간 미국에 거주하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로 구분됩니다(실제체류기간테스트: 183일 기준). 이렇게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되면 미국의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세무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런 자의 경우 실제체류기간요건(183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최근 3년의 기간 중 어느 1년 또는 그 이상이면 해외거주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에 투자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김태백 씨의 경우를 보면, 그는 2012년 도부터 실제체류기간요건(183일 기준)을 충족

했으므로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가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의 기간(2013년, 2012년, 2011년)중 2011년은 183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김태백씨는 해외거주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세금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가능

2014년 개정전의 규정(2012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은 해외거주자로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에게만 적용되던 규정이었습다. 그러나 2014년 개정 규정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뿐만 아니라 세금신고를 했더라도 누락소득이 있어 세금을 내지 않은 자 모두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해외거주자의 경우 세금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세금신고를 제대로 했으나(누락 소득없이 세금을 냈으나) 해외계좌신고만 누락하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FBAR 지연제출 신고(delinquent FBAR)'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살펴본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규정(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은 세금신고를 했던 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신고를 해야 했으나 신고를 누락한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2014 간소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규정의 혜택은?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 규정에 따라 누락된 세금신고나 누락된 해외계좌신고를 하면, 세법상의 가산세(penalties)와 FBAR가산세 등 모든 종류의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누락한 소득에 대한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interest)만 내면 다른 가산세는 문제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무엇을 신고하나?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이 '2014 해외거주자 간소화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신고서와 함께 누락된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interest)를 납부해야 합니다.

- ① 세금신고를 했던 자는 최근 3년간의 수정 세금신고서(1040X),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최근 3년간의 지연제출세금신고서(delinquent tax return)
- ② 확인서(Form14653)
- ③ 누락한 소득에 대한 세금 및 그에 대한 이자
- ④ 최근 6년간의 FBAR 지연제출 신고(delinquent FBAR)

Hanca Education Center  
한카교육원 교육프로그램

\* 한카교육원은 간이식당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멀티미디어룸을 포함  
9 개의 강의실을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캐나다 최고의 교육도시  
문화중심 도시 몬트리올!!  
세계 최대 이중언어 도시  
몬트리올!!


# 북미의 파리, 몬트리올에서 불어공부하자!

몬트리올 유학은

- 불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환경에서 수준높은 교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한카교육원의 유학프로그램은 북미한인언론인협회(KAFA)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몬트리올 유학 프로그램의 특징



**초중고 불어학교 / 영어학교 조기유학**  
- 불어학교 / 영어학교 또는 영.불어 통합학교 중 선택  
- 숙소비, 학원, 학비, 홈스테이 비용 포함 관리 유학 연간 \$39,000(CAD)

**불어/영어 단기유학**  
- 현지 공립학교에서 교육



**불어 & 영어 여름 캠프 2015 June**  
- 몬트리올의 여름을 즐기며 배우는 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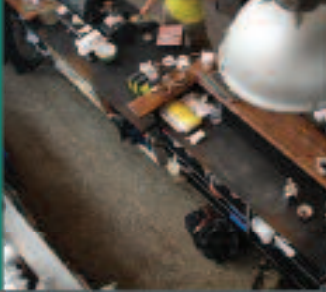






**성인 불어/영어 직업교육(이후 이민가능)**  
- 부모 유학비자로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 교육가능(EMS 교육청)

**성인 불어/영어 연수**  
- 불어 교육청 / Language school / etc.

**McGill University 입학준비반**  
- 세계 10대 대학, 저렴한 생활비와 학비



전통의 힘!! 새로운 힘!! 한카교육원에서는 전통과 청신함으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카유학원에서는 조기유학, 영어, 불어, 수학, TEFoQ 등 최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33 Boul. Cavendish Suite 100, Montréal Québec, Canada H4B 2M5  
한카 교육원 http://hancastudy.com

 CÉH École de Langues/Mathématiques  
HEC Language/Mathematic school  
tel: 1.514. 600.3444  
070.4498.1106  
hancastudy@gmail.com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 유명하지 않은 명문 대학교 (2)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총 학생 수가 3만 6천명이 넘는, 메릴랜드 주와 워싱턴 DC 지역 일대에서 가장 큰 대학이며, 메릴랜드 주립 대학교 시스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기도 하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California)나 미시건 대학교 (University of Michigan) 만큼 한국 학부모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미국 주립대학교 중에서 20위에 랭크되어 있고, 경영 정보 시스템(MIS) 학과와 우주항공학을 포함해 10 위권 안에 든 학부/대학원 프로그램도 20개나 된다. 범죄학 전공은 전미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미국 언론인들이 뽑은 저널리즘(신문방송) 대학 10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특히 대형 연구 시설을 기반으로 연구 활동이 활발한데, 워싱턴 DC와 가깝다는 지리적 잇점 덕분에 미 연방 정부 산하의 여러 연구소들과 협력 관계에 있다. 실제로 메릴랜드 대학교의 많은 교수진이 미국 국립 보건원(NIH)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미국 국토안보부, 미국 농무부(USDA) 등에서 연구비와 지원을 받고 있다. 대형 연구 대학이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소자본 창업에도 열성을 기울이고 있어

서 매주 'Innovation Fridays' 행사를 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수진과 외부 기업 인사 등에게 자신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평가 받게 된다. 또 매년 봄마다 교내 창업 경시 대회를 열어 25만 달러 상당의 사업 지원금을 수여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Sergey Brin과 운동복 회사 Under Armor의 창업자 Kevin Plank 등이 UMDCP 출신이다.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버지니아 주 렉싱턴 시에 위치한, 총 학생 수 2,200명 (학부 1,800명, 대학원 과정 400명) 정도의 작은 사립 교양대학 (Liberal Arts College)이다. 1749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에서 9번째로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이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당시로서는 거금인 2만 달러를 기부하고, 남북전쟁 때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로버트 리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학교의 명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원래 Augusta Academy였던 학교의 명칭도 Washington and Lee로 바뀌게 되었다.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전미 교양대학 14위며, 학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Best Value School 9위기도 하다. 하지만 대학 순위 이상으로 워싱턴 앤 리 대학 출신 학생들의 의학 대학원 합격률이 90%를 넘는 등 경영 대학원, 법학 대학원(로스쿨) 등의 전문 대학원 진학률이 굉장히 높

다. 학생들의 자유도도 매우 높는데, 감독 없이 시험을 치르거나 기말 고사를 원하는 날짜에 치를 수 있게 하고, 심지어 시험을 집에 가져가도 되게 하는 식의 수업이 많다. 이는 총장이었던 Lee 장군이 강조한 '학생의 신사도 (Code of Honor)'에서 기반된 전통으로, 학생의 신임을 믿는 대신 학생의 거짓말이나 표절, 그 어떤 부정행위라도 발각될 시 바로 퇴학 조치로 이어진다.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UC Berkeley나 UCLA의 그림자에 밀려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미국 최고의 수 의학과와 환경과학과, 농대가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California) 중에서 가장 넓은 22.2 평방 킬로미터의 대학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UC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 공항이 있다. 처음에는 버클리의 대학 농장 및 농과대학 분교로 문을 열었지만 현재는 의학 대학원과 법학 대학원, 간호대 등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 중에서 가장 많은 6개의 전문 대학원 과정이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부는 가장 유명한 농업과 환경 과학 대학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Sciences)을 필두로 생물학 대학(Biological Sciences), 공대 (Engineering), 문리대 (Letters and Science)의 네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특히 생물학 중에서도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연구인 생태학과 진화 생물학은 미국 3

위, 농업 과학은 7위다. 미국 학술원 (National Academy of Science) 회원 23명을 자랑하는 공대와 수소폭탄의 아버지 물리학자 Edward Teller가 창설하고 이끈 응용과학과도 물론 그 명성을 여전히 떨치고 있다. 학교 규모에 걸맞게 종합 병원, 미술관, 수목원, 농장, 방송국, 대규모 공연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연구비 지출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발표한 대학 연구 개발비 조사에 따르면 농업분야에서는 전미 1위, 총 연구비 지출도 7조 달러를 넘어서 미국내 21위에 해당한다. UC Davis는 UC 중 유일하게 졸업 조건으로 작문 시험을 의무화하기도 유명하다. 졸업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논문 형식의 에세이를 제출해야 하며, 대부분의 종합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따로 훈련하지 않는 점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다음 칼럼에 계속)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고의 언론지 TIMES 선정  
2014년 베스트 발명품

# 연예인만 셀카 ?

아니아니~ 나도 셀카 찍고 싶어요!  
혼자서 얼짱각도~ 찰칵! 연인끼리 놀러가서~ 찰칵!  
친구들끼리 놀러가서~ 찰칵!



- 2015년 최신 셀카봉!
- 리모컨이 본체에 달려있는 버튼 일체형
- 싼 셀카봉 믿지 마세요!



최한가격  
**\$29.99**

구입 문의 **617-955-9112**

**최고급**  
스마트폰 글래스 스크린 프로텍터 Japanese Glass

특수 기공 유리로 0.4mm의 두께로 얇고  
간편하게 부착, 일반 필름보다 3배 강한 강도로  
바닥에 떨어뜨려도 액정화면을 보호해 드립니다.

대리점 문의: 213.545.4334

**연말연시 최고의 선물용품**  
방송으로 소문 난 그 제품!  
▶무한도전 ▶나혼자 산다 ▶꽃보다 형준

www.pospay24.com



#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노퍽 새 기계, 새 셔츠유닛,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소유자 32년만에 은퇴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39,000

동양 그로서리, 연매상 \$415,000 다운타운 보스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가격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훌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BOSTON Eds  
Boston Education World

# 보스톤 교육원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 아카데믹 프로그램

####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 겨울방학 단기집중 프로그램

기간: 12월 20(토)~31(수) 11일간  
(12월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은 휴강)

#### SATI/SSAT/TOEFL class

-각 파트별 균형잡힌 시간배분  
(CR:6일, W:3일, Math:2일)  
-실전문제풀이중심의 수업  
-종일 프로그램(9:00-5:00)  
-실력있는 강사진

#### SAT2 Subject test prep

Math IIC,Bio,Chem, Physics

전과목 개인 수업 가능

### 2016 College Process

대상: 11 학년  
모집기간: 2015년 2월 말까지

### 경시대회준비

수학 경시 준비(AMC/AIME)

외국어 경시 준비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생물, 물리, 화학)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